退溪書誌의 硏究

慶北大 專任講師 尹 炳 泰

<目 次>

緖論
一 退溪의 生涯와 著述
1 退溪의 生涯
2. 退溪의 著述
二. 著書의 硏究
1. 聖學十圖 (以上本稿)

緖 論

1. 硏究의 目的

이 硏究는 우리나라 儒學者의 書誌的 硏究의 一環으로서 于先 退溪 李滉의 書誌的 硏究를 이루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찌부터 高句麗時代에 經書가 이미 渡來하였고, 統一新羅時代와 高麗時代를 걸쳐 朝鮮朝에 나려와서는 中國에 버금가는 儒學의 隆盛을 이루었다. 이 隆盛과 竝行하여 數많은 儒學者를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바 있다 이 儒學者들은 배우고 硏究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많은 著述까지 남기었으니, 이 著述들이야 말로 우리 民族의 貴重한 精神文化財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도록 貴重한 精神文化財의 繼承은 적어도 文字化되었으며, 이 文字化한 儒學思想의 傳承은 典籍의 形態로 오늘날까지 傳存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러한 典籍의 傳存은 여러번의 外患과 內難에 의하여 數없이 散逸되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의 끈기 있는 精神은 이와 같은 狀況아래에서의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典籍의 保存에 努力하여왔으며, 그 永續的 傳存을 위하여 典籍들을 刊行하였고, 또 새로운 著作物을 著述하거나 編纂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오늘 날 우리들 書誌學徒가 하여야 할 重要한 일 中의 하나는, 이와 같은 우리 民族의 重要한 典籍을 올바로 蒐集하고 列擧하고 記述하며 分析하는 일이다.

특히나 옛부터 우리 民族의 三大 精神的 遺産이었던 儒·佛·仙 세가지 思想中에서 後의 二者는 그만 두고라도 儒學의 思想을 傳하여 주는 儒典과 儒學者의 著作에 관한 書

誌的 硏究는 緊要하다 그러나 이러한 書誌的 硏究는 그 對象이 너무나 방대하며,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힘겨운 作業인 것이다. 이 硏究에서는 이와 같은 點을 考慮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代表的인 思想家이며 儒學者인 退溪 李滉의 書誌的 硏究만이라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2. 先行 書誌的硏究의 槪要

退溪 李滉의 著作에 관한 書誌的인 考察은 우리나라에서 比較的 일찍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最初의 試圖가 있었다고 한다면 西厓 柳成龍이 編한 ≪退溪先生年譜≫를 들 수가 있다[1] 이 年譜는 그 書名이 가리키는 것과 같이 退溪의 生涯를 年代順으로 記錄한 것이다. 이 編者는 年譜 속에서 退溪의 著作을 그 著作時期의 順으로 記錄하고 必要한 경우에는 註를 달고 있다. 이 年譜는 退溪의 著作을 硏究하는데 있어서 언제든지 1次的인 資料를 提供하여주고 있다.

이 年譜에 곁드려서 言及할 것은 ≪退溪先生文集≫이다[2] 元來 個人의 文集은 書誌的 硏究 그 自體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個人의 著作 등 여러가지 活動에 關한 情報가 多分이 들어 있는 것이 通例이다. ≪退溪先生文集≫ 속에도 이러한 原資料가 많이 들어 있으니, ≪退溪先生年譜≫를 編纂할 때에 採錄한 文集속의 書簡·序文·跋文·後識 등은 年譜와 더불어 꼭 對校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 最初의 解題書目이라 할 수 있는 金烋의 ≪海東文獻總錄≫에도 退溪의 著作은 거의 모두가 收錄되어 있다.[3] 이 解題는 版本學的인 說明은 들어있지 않으나 最初로 이루어진 解題라는데 그 意義가 있다.

≪退陶先生言行通錄≫의 卷首에 있는 <採樵諸家書目錄>은 退溪에 관한 文獻의 書名과 그 著·編·筆者를 아르켜주는데 參考가 된다[4] 마찬가지로 星湖 李瀷이 編纂한 ≪李子粹語≫의 卷首에 있는 <引用書册> 역시 退溪의 著作과 退溪에 관한 文獻의 書名과 그 著·筆者를 알려주고 있다[5] 그러나 이 두가지 册은 모두 解題가 없는 것이 缺點이다.

正祖때 徐有榘가 王命으로 編纂한 ≪鏤板考≫는 오랜동안 寫本으로 行하여지다가 19

1) 李滉, 增補 退溪全書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1971, 影印本), 三 pp 576~596 (以下「影印本」으로 略稱한다.)
2) 上揭書, 一 p 1~三 p 150
3) 金烋, 海東文獻總錄 (서울 學文閣, 1969, 影印本), pp 259, 322, 339, 350, 353, 435, 448, 503, 512, 781, 782, 795~798, 834
4) 影印本, 四 p 5
5) 上揭書, 五 p 173~174

41年에 와서야 洪命憙의 校訂으로 大同出版社에서 刊行되었다 [6] 이 책은 分類順으로 된 册板目錄으로 書名 卷數 著者가 밝혀져 있으며 또 簡單한 解題가 있고 마지막으로 册板을 所藏하고 있는 곳과 册板의 張數를 밝히고 있다 이 ≪鏤板考≫에는 陶山書院을 비롯한 退溪 著·編書의 册板 所藏處를 알려 주고 있다

官撰書誌로서 가장 방대한 ≪增補文獻備考≫의 <藝文考>에도 退溪의 著·編書나 退溪에 關係되는 著作物의 書目이 들어 있으니, 그 書名·著作者 그리고 卷數를 알려주고 있다 [7] 그러나 이 <藝文考>에는 解題가 없다 이 책과 비슷한 形式으로 된 ≪山泉家熟東國通誌≫의 <藝文志>에도 退溪의 著作이 收錄되어 있다 [8] 이 <藝文志>는 分類順 書誌인데 解題는 없으나 類別의 總論에서 間或 略述한 경우가 있다

佛蘭西人으로서 우리나라 解題書誌를 施行한 Courant의 ≪Bibliographie Coréenne≫에는 退溪의 著·編書와 退溪에 關한 著作의 거의 大部分이 收錄되어 있다. [9] 이 책은 事實上 우리나라 最初의 形態書誌學的인 古典書誌라 할 수 있겠으나, 收錄한 책들은 實見한 것이거나 文獻上에 나타난 것에만 限定되어 있다.

이보다 늦게 나온 前間恭作의 ≪古鮮册譜≫는 Courant 보다도 더 많은 退溪書 誌를 收錄하고 있다 [10] 이 책은 豊富한 引用文獻과 그 典據를 밝힌 것, 여러 書誌를 拔萃하여 綜合한 것, 實査한 책에 대한 자세한 解題, 그리고 가끔 붙인 圖版 등으로 因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退溪書誌硏究의 重要한 資料가 될나고 보겠다

日本에서도 旺盛하였던 退溪著書의 刊行에 대한 部分的인 硏究가 더러 있었으나 綜合的으로 言及한 것은 阿部吉雄의 ≪日本朱子學と朝鮮≫ 이다 [11] 이 책에서는 日本에서 刊行된 退溪의 著·編書를 槪觀하고 있으며, 圖版도 가끔 들어 있고 또 이 著作의 性質上 退溪의 著書에 대하여는 여러 곳에서 자주 言及하고 있다.

本格的인 退溪書誌의 著作을 들라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退溪의 著·編書를綜合 影印한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의 ≪退溪全書≫卷首에 있는 李家源敎授의 <解題>를 들 수가 있다 이 <解題>는 1971年에 增補한 影印本을 刊行하였을 때에도 그대로 印刷되었다 [12] 1963年부터 發刊한 日本 岩波書店 刊行의 ≪國書總目錄≫에는 日本에서 刊行하였거나 筆寫한 數많은 退溪의 著書와 그 밖에 關聯이 있는 日本著作物의 書

6) 余有渠, 鏤板考, 洪命憙 校訂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16(1941)) 7卷1册
7)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 (서울. 東國文化社 1957, 影印本), 下 pp 837~914
8) 이 책은 柳鐸一 敎授藏 複寫本에서 보았다. 卷之十六~十七이 藝文志第十 上·下로 되어 있다
9)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Ernest Leroux, 1895~1901) 4vols
10) 前間恭作 編, 古鮮册譜 (東京· 東洋文庫, 昭和 19~32(1944~1957)) 3册.
11)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昭和40(1965)). 563p
12) 影印本, 一 卷首 12p

目이 收錄되어 있다 [13] 모두 8册의 이書目은 簡略한 記述로서 書名·著者·刊行年度·刊行方式·刊行地·卷册數 그리고 現所藏處 등을 알려 주고 있다. 이 책은 日本版에 대한 書誌的인 硏究에는 一次로 調査하여야 할 書誌이다

이 책보다 늦게 筆者가 編纂한 ≪韓國古書綜合目錄≫에는 退溪書誌를 거의 網羅하여 收錄하였다 [14] 이 책은 所藏者를 分明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異版에 대한 版式도 아울러 밝혔으며, 여짓것 알려진 가장 精密한 書誌이다. 退溪의 著作은 卷末의 索引으로 쉽사리 찾을 수가 있다.

日本에서 刊行한 退溪의 著·編書를 몽아 影印한 阿部吉雄 編의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上·下의 卷首에는 編者의 日本語 <解題>와 金聲翰의 國譯이 있다 [15] 이 解題中 日本語 解題는 ≪李退溪硏究會會報≫ 第三號에도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總目次並 略解>라 하여 縮約되어 發表된 일도 있다[16]

退溪關係書誌를 가장 簡單하게 다룬 책으로는 李相殷博士의 ≪退溪의 生涯와 學問≫이 있다. [17] 여기에서는 <著述의 業績> <退溪學問의 背景>이라하여 退溪의 著書와 編書를 紹介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槪觀한 以外에도 退溪의 著書나 編書를 하나하나 다룬 硏究가 많이 있다. 이러한 硏究는 諸洪圭 編著의 ≪韓國書誌關係文獻目錄≫에 거개가 실려 있다 [18]

이밖에도 ≪退溪學硏究≫[19]나 ≪退溪學報≫[20] 같은 退溪硏究 의 專門硏究誌가 있어 影印과 解題가 發表되기도 한다.

그러나 書誌學的 乃至 版本學的인 面에서 이루어진 退溪書誌의 綜合的 硏究는 여짓껏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硏究로서 처음 試圖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까 생각한다.

3. 硏究의 方法과 制限點

書誌的인 硏究는, 그 對象·範圍를 不問하고 大體로 ①蒐集, ②記述, ③列擧, ④分析의 네가지 段階의 過程을 걸친 다음에야 結論을 抽出하거나 書誌의 編纂이 이루어진다.

---

13) 岩波書店 編, 國書總目錄 (東京: 同書店, 昭和38~ (1963~)). 8册.
14) 尹炳泰 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1439, 72p.
15) 李滉, 日本刻版 李退溪全集(上·下), 阿部吉雄 編 (東京: 李退溪硏究會, 1975)
16) 阿部吉雄, "略解", 李退溪硏究會會報, 第三號, (1976.1), pp 12~22.
17)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서울· 瑞文堂, 1973), pp.76~154
18) 諸洪圭 編, 韓國書誌關係文獻目錄 (서울: 景仁文化社, 1976)
19) 退溪學硏究, 第一輯~ 〔大邱〕· 慶尙北道 文化公報室,
20) 退溪學報, 創刊號~ 編輯·退溪學硏究院 서울 韓國書院, 1973~

한편 個人書誌의 硏究에서 다루어야 할 範圍를 考慮한다면 ㉠大略的인 傳記資料, ㉡著書에 關한 書誌的 考察, ㉢編書에 關한 書誌的 考察, ㉣刊行書에 關한 書誌的 考察, ㉤藏書에 關한 考察과 그리고 ㉥被傳者의 傳記나 硏究書 및 論文의 書誌 등을 包含할 수가 있다 退溪書誌의 硏究를 行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여섯가지 範疇가 全部 包含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硏究의 첫 段階로서는 退溪의 著書·編書 그리고 退溪가 刊行한 책에 關한 廣範圍한 蒐集이 必要하다 蒐集의 對象에 드는 圖書들은 大槪가 稀貴本이거나 傳存이 적은 限定刊行物이며, 비록 求할 수 있다 하여도 高價이므로 도저히 不可能하다. 따라서 蒐集의 段階에서는 必要한 部分을 複寫하거나 影印本의 調査로 限定할 수 밖에 없다. 한편 所藏者의 確認에 있어서도 筆者의 ≪韓國古書綜合目錄≫에서 밝혀진 경우나 혹은 最近에 刊行된 여러가지 藏書目錄에 收錄된 以外의 個人藏書까지는 도저히 힘이 미치지 않는다.

두번째 段階의 記述은 精密記述이 書誌學의 生命이다 이 硏究에서도 實査한 경우에는 精密記述을 할 수 있으나, 空間的·時間的 制約으로 實査할 수 없을 때에는 不得히 檢索한 目錄이나 參考한 文獻의 記述을 그대로 轉用할 밖에 方法이 없다 但 精密記述을 行할 때에는 白麟의 ≪古書目錄規則≫[21]의 精密記述法을 適用하여 記述하도록 努力하였다.

세번째 列擧의 段階에서는 于先 古刊本 즉 1910年 以前에 刊行한 木版本이나 活字本을 著書·編書·刊行書의 區分없이 各其書名의 가나다順으로 統合하여 함께 配列하되 여러번 刊刊된 圖書만을 먼저 다루기로 하였다

네번째 分析의 段階에서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것을 나룬다

ㄱ. 著作物의 成立과 刊行에 대하여, 序文과 跋文·識文 그리고 關聯記錄이나 文獻에 의하여 다루며, 特히 凡例나 編纂者 혹은 刊行者의 文集에 있는 記錄을 調査 分析한다.

ㄴ 內容에 대하여는 그 目次를 細記하는데 그치며, 具體的인 哲學·思想·文學 등 專門的인 分野에 대한 分析은 省略한다. 이는 個個書에 대한 專門的인 論著가 많은 까닭이다.

ㄷ. 引用書目에 대하여는 現存하거나 各種文獻에서 보이는 여러 版本을 提示한다.

ㄹ 存本과 異本에 대한 版本 分析에서는 그 版格의 記述을 精密하게 提示하여, 版式의 差異, 內容編綴의 異同 등은 一一히 言及하고, 必要에 따라 寫眞등으로 圖示하기

21) 白麟 編著, 古書目錄規則 (서울 :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1966)

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個個의 著作 끝에 參考文獻을 붙여 앞으로 硏究할 사람을 위한 資料의 所在를 밝히기로 하였다.

4 用　語

이 硏究에서 使用한 版本關係用語에는 대체로 생소한 用語가 많다. 이러한 書誌學的 用語는 白麟 編著의 ≪古書目錄規則≫의 用語를 援用하기로 定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諸洪圭 編著의 ≪韓國書誌學辭典≫[22]에서 一部 援用한 경우도 있다.

一. 退溪의 生涯와 著述

1. 退溪의 生涯

退溪의 生涯에 대하여는, 退溪를 硏究한 여러가지 著書나 論文에서는 거개가 꼭 言及한 까닭에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쓰기는 번잡한 일이다. 따라서 이 論文의 性格으로 보아 退溪의 生涯를 다룬 重要한 原資料와 몇가지 文獻을 우선 다루고, 이 論文과 直接 關係가 있는 事實만 言及하고자 생각한다 退溪의 先系에 關한 記錄을 보자면 먼저 ≪眞城李氏族譜≫를 보아야만 된다 이 族譜는 個人이 收藏한 것 以外로는 梨花女子大學校圖書館과 서울大學校圖書館 일사文庫本 속에 英祖23年(1747)에 刊行한 木版本 4卷4册本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23] 너무 簡略하기는 하나 ≪萬姓大同譜≫에도 이 系譜가 縮約되어 실려 있다 [24] ≪萬姓大同譜≫보다 자세한 系譜로 흔히 接할 수 있는 系譜로는 ≪退溪先生年譜≫의 卷首에 실은 <退溪先生世系之圖>를 들 수가 있다. [25] 이 世系圖는 두차례의 影印本에도 모두 收錄되어 있으며 第1張 앞面부터 뒷面에 걸쳐 先系가, 뒤이어 子孫들 까지 收錄되어 있으니 註記한 記事는 거의 없거나 比較的 簡單하다. 그리고 退溪의 家系를 다룬 論文으로는 ≪退溪學硏究≫ 第1輯에 있는 李乘旭敎授의 <退溪李滉의 家系와 生涯>[26]가 있어 도움이 된다.

退溪의 傳記를 編年順으로 硏究하려면 가장 基本的인 資料는 ≪退溪先生年譜≫이다. 이 年譜는 陶山書院에서 刊行한 책과[27] ≪退陶先生言通錄≫ 卷之六~七로 並載한 것[28]

22) 諸洪圭 編, 韓國書誌學辭典 (서울　景仁文化社, 1974)
23) 註14同書 p 679
24) 尹植求 編, 萬姓大同譜 (京城　萬姓大同譜刊行所, 1931), 上 pp 261~266.
25) 影印本, 三 pp 553~575.
26) 李乘旭, "退溪 李滉의 家系와 生涯", 退溪學硏究, 第一輯, (1973 12), pp 99~116
27) 影印本, 三 pp 576~596
28) 上揭書, 四 pp 113~152

이 있다. 前者의 陶山本은 訓의 字體가 작은 反面, 後者의 言行通錄分은 註의 字體가 크므로 後者 쪽이 利用하는데 더 便하다 이 두가지 모두가 2種의 影印本과 ≪고전국역총서≫21의 ≪국역퇴계집≫Ⅱ[29]속에 全文이 收錄되어 있으므로 얻어 보기가 쉽다. 더구나 後者의 경우에는 그 原文과 譯文이 前記 ≪국역퇴계집≫Ⅱ와[30] 大洋書籍刊 ≪韓國名著大全集≫의 ≪退溪集≫속에 合刊된 것[31]도 있다 그리고 日本版 ≪李退溪書抄≫ 卷首에도 收錄되었다 [32]

退溪의 年譜는 ≪東國文廟十八賢年譜≫[33] 속에도 抄記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抄譯도 이루어졌으니, ≪退溪學硏究≫第1輯에 宋兢燮敎授가,[34] ≪退溪學報≫創刊號에 李完栽씨가 譯한 것[35]이 그 例이며, 이 抄譯만으로도 重要한 傳記資料는 찾을 수가 있다.

退溪의 傳記資料中 分類別로 되어 있는 資料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退溪先生言行通錄≫으로 卷之二부터 卷之五까지에 <類編>이라 題한 것이며,[36] 다른 하나는 ≪退溪先生言行錄≫으로 本文 속의 卷之一부터 卷之五까지가 이에 該當한다 [37] 그中 前者는 年譜와 함께 ≪국역 퇴계집≫Ⅱ[38]와 大洋書籍 刊行 ≪韓國名著大全集≫의 ≪退溪集≫ 속에 그 原文과 國譯文이 收錄되어 있다.[39]

退溪에 關한 公的인 傳記資料는 ≪朝鮮王朝實錄≫ 속의 여러 實錄에도 散見된다 [40] 이 實錄은 退溪가 돌아가신 以後에도 關聯있는 記事나 많이 나온다

叙述式으로된 退溪의 傳記資料로는 退溪가 손수 지은 <墓碣銘>이 있어 ≪退溪先生年譜≫ 卷之三의 <附錄>으로,[41] ≪退溪先言行通錄≫ 卷一과[42] ≪陶山及門諸賢錄≫卷首[43]에도 各各 收錄되어 있다 또 다른 叙述式 傳記로는 鶴峰 金誠一이 撰한 <實記>와

29) 李滉, 국역 퇴계집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68), Ⅱ pp. 512~529
30) 上揭書, Ⅱ pp. 174~214
31) 李滉, 退溪集, 張基槿 譯 (서울 大洋書籍, 1975), pp 395~412
32) 註15同書, 下 pp. 8~15
33) 安寅植 口訣, 東國文廟十八賢年譜 (서울 . 韓國名賢遺蹟硏究所, 1966). "九 退溪先生年譜", 24p.
34) 柳成龍 編, 宋兢燮 譯, "退溪先生年譜(抄譯)", 退溪學硏究, 第一輯, (1973 12), pp 13~34
35) 柳成龍 編, 李完栽 抄錄, "退溪先生年譜(抄)", 創刊號, (1973 10), pp 36~41
36) 影印本, 四 pp 23~112.
37) 上揭書, pp 169~243
38) 註29同書, Ⅱ pp 215~421, 530~625
39) 註31同書, pp 315~394.
40) 朝鮮王朝實錄 (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 探求堂, 1968~1970, 影印本), (以下 「實錄」으로 略稱한다)
41) 影印本, 三 pp 601~603
42) 上揭書, 四 pp 20~21, "先生自銘(附後叙略) "
43) 上揭書, pp. 9~13

栗谷 李珥가 撰한 <遺事>가 있으며, 비슷한 性格의 글로는 月川 趙穆이 撰한 <言行總錄>이 있다. 그中 <實記>는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一과 ≪退溪先生言行錄≫ 卷之六 附錄[44]에 各各 收錄되었고, <遺事>는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一에 收錄되어있다.[45] <言行總錄>은 ≪退溪先生年譜≫卷之三 附錄[46]과,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一과,[47] ≪陶山及門諸賢錄≫ 卷首[48] 그리고 日本版 ≪李退溪書抄≫[49]에 各各 收錄되고 있으나, ≪退陶先生言行通錄≫만 撰者 表示가 있고, 그밖의 여러 版에서는 그 表示가 없다. 그리고 日本版 ≪李退溪書抄≫에서는 題까지도 <退溪先生行實>로 바꾸어 놓았다.

近來에 나온 敍述式의 國漢文 傳記로는 李丙燾,[50] 朴鍾鴻,[51] 李相殷,[52] 柳正東,[53] 그리고 前逸한 李東熙敎授의 글[54]이 있으며, 그中 李相殷博士가 쓴 것은 ≪瑞文文庫≫ 속의 單行本으로 刊行되었다.

退溪의 傳記에 關한 다른 種類의 資料는 退溪의 友人과 弟子의 글 속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다. 退溪의 弟子를 알려면 ≪韓國人名大事典≫[55]이나 ≪韓國故事大典≫[56]과 같은 곳에서도 찾을 수는 있으나, 너무 簡略하여 漏落한 사람이 많다. 이러한 問題는 ≪陶山及門諸賢錄≫이나 ≪退溪先生門人錄≫의 利用으로 쉽사리 解決된다. 前者는 4卷의 本錄과 1卷의 續錄 등 모두 5卷에 걸쳐 姓名·字·號·本貫·居所·生年·退溪와의 關係·事實·業績 등을 簡略하나마 記錄하고 있어, 이들의 文集이나 著作에 의하여 退溪의 傳記資料를 抽出할 수가 있다.[57] 後者는 寫本 1冊이 日本의 靜嘉堂文庫에 있음이 알려져 있으나,[58] 國內에는 그 內容이 알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前者의 抄記가 아닌가 생각된다.

以上과 같은 文獻을 모두 綜合하여 退溪의 生涯를 要約하여 보면, 本貫은 眞城, 父는 埴, 母는 春川朴氏로, 退溪의 名은 滉, 처음 字는 季浩며 後에 景浩로 고쳤고, 燕山7年

44) 上揭書, pp 244~247
45) 上揭書, pp 21~22
46) 上揭書, 三 pp 597~601.
47) 上揭書, 四 pp 9~13
48) 上揭書, pp 313~317.
49) 註15同書, 下 pp 15~17
50) 李丙燾, "李滉", 朝光社 編, 朝鮮名人傳 (서울 : 朝光社, 1948), pp 270~287
51) 朴鍾鴻, '李滉/이황 ‖ 性理學의 眞髓", 韓國의 人間像 (서울 : 新丘文化社, 1965), 4 學者篇, pp 157~184
52) 李相殷, 前揭書, pp 15~106
53) 柳正東 編著, 退溪의 生涯와 思想 (서울 博英社, 1974), pp 8~22.
54) 李東熙, 前揭論文
55) 韓國人名大事典, 同 編纂室 編 (서울 新丘文化社, 1967), p 1180, "歷代儒學者系譜"; p 1181, "朝鮮儒學者系譜."
56) 金舜東, 韓國故事大典, 修正再版 (大田 回想社, 1969), pp 635~644 "退溪 李滉門人"
57) 影印本, 四 pp 319~406
58) 註14同書, p 1361

辛酉(1501) 11月 25日己亥 辰時에 禮安縣 溫溪里에서 出生하였다.

12才(1512)때에 叔父인 松齋 李堣로 부터 《論語》를 배웠고, 21才(1521)에 進士 許瓚의 따님을 맞아 寯·寀 두분 아들을 두었으나 許夫人은 1527年 11月에 돌아가셨다. 그 사이 1523年에는 成均館에도 다녀 오셨고, 1527年 가을에는 慶尙道鄕解의 進士試에서 首席으로 그리고 生員試에서는 二等으로 合格하였다. 28才(1528)의 봄에는 進士會試에서 二等으로 合格하였으며, 30才(1530)에는 奉事 權礩의 따님과 再婚하였다 이듬 해에는 側室에서 아들 寯을 낳았다. 다음 32才(1532)에는 文科別試의 初試에 二等으로 合格하였다 33才(1533)에 慶尙道 鄕試에 나가서는 一等을 하였고, 34才(1534)의 3月에는 科擧에 合格하였으며, 그 해 4月에 承文院의 權知副正字로 補職 받은 後부터는 여러가지 官職을 지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받은 벼슬은 69才(1569) 正月에 吏曹判書를 不拜하면서 다시 지낸 判中樞府事였다 이 벼슬까지도 몇번이나 사양하였다. 宣祖3年(1570) 12月辛丑 酉時에 돌아가셨으니 그때 나이 70才였다 돌아가신 다음 領議政 등 여러 贈職이 있었고, 禮安 寒芝山 南쪽에 禮葬하였으며, 宣祖7年甲戌(1574) 봄에 鄕士들이 陶山 남쪽에 書院을 세우니, 그 이듬 해(1575)에 書院이 完成되자 陶山書院이라는 賜額도 있었고, 또 宣祖9年丙子(1576) 12月에는 "文純"이라고 諡號도 나렸다.[59]

2. 退溪의 著述

退溪의 著作이나 編作에 관한 記錄은 거의 그의 <年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제 ≪退陶先生言行通錄≫에 收錄한 <年譜>에서 찾아, 이를 著述한 年度順으로 引用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53歲(1553) 10月 改訂 鄭之雲 天命圖
54歲(1554) 5月 與 盧伊齋守愼 書論 夙興夜寐箴註解
〃 跋 延平答問
〃 10月 書進 思政殿 大寶箴
〃 12月 製進 重修景福宮記
56歲(1556) 6月 編次 朱子書節要 成.
〃 12月 草 鄕約
〃 〃 序 朱子書節要
57歲(1557) 7月 啓蒙傳疑 成
58歲(1558) 6月 跋 魚瀣圃得江詩集.
59歲(1559) 5月 答 黃仲擧 書論 白鹿洞規集解
〃 12月 始編 宋季元明理學通錄
60歲(1560) 正月 跋 曹南冥 遊頭流錄.

59) 이 事蹟은 影印本 四 pp 113~152의 年譜에서 抄譯한 것이다

〃 11月 答 奇高峰 書辨 四端七情
61歲(1561) 11月 作 陶山記.
64歲(1564) 9月 撰 靜庵趙先生行狀
65歲(1565) 4月 書 敬齋箴圖 白鹿洞規圖
〃 8月 改正 景賢錄
66歲(1566) 7月 上·令 礪城君 宋寅書 陶山記 及 雜詠
〃 10月 撰 晦齋李先生行狀 且 校正 文集
〃 〃 作 心經後論
〃 與 柳仁仲 書論 續蒙求.
67歲(1567) 7月 爲 大行王行狀修撰廳堂上 撰 行狀.
68歲(1568) 8月 上疏 陳 六條.
〃 9月 進講 程子 四箴
〃 爲 實錄撰進都廳堂上
〃 11月 入弘文館 校正 西銘.
〃 12月 上 聖學十圖幷箚子
69歲(1569) 2月 上 廟圖及箚子.
〃 9月 答 盧伊齋 議 喪禮書.
70歲(1570) 10月 與奇明彦 書論 心性情圖
〃 11月 答奇明彦 書 改 致知格物說[60]

위와 같은 著述에 관한 여러가지 活動 속에서, 그 一部分은 ≪退溪先生文集≫ 속에 한首의 著作으로 이미 包含하여 收錄된 것도 있지만, 거의 全部가 單行著作으로서 現存하고 있는 것만을 추린 것이다

現存하는 退溪의 著述 혹은 退溪와 關聯이 있는 著書를 가장 폭 넓게 收錄한 書誌로는 ≪韓國古書綜合目錄≫을 들 수가 있다[61] 이 目錄에 따르면 該當하는 書名이 모두 45面에 걸쳐 113種이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이 目錄에서는 卷首題가 다르면 別書로 간주하고 收錄한 事情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그 版本에 대한 究明이 이루어지면 절로 밝혀지겠지만, 이 ≪韓國古書綜合目錄≫에서 收錄하지 못하고 漏落한 刊本과 寫本이 繼續 나타남을 보아 앞으로도 退溪의 著述이 單行本으로 通行하는 책의 種類가 더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

위 두가지 文獻 以外의 退溪 著述 書誌에 대하여는 前述한 "緖論 2"에서 擧論하였으므로 略하거니와, 이들 書誌속에서 다룬 個個의 書名에 대한 言及이나 引用은 다음 "二 著書의 硏究"와 그 以後에서 계속하여 다루기로 한다.

60) 影印本 四 pp 123~151
61) 註14同書, 索引 p 51의 "李滉"에서 찾아낼 수 있으나 그밖에도 더 包含되어 있다

二. 著書의 硏究

1. 聖學十圖

이 ≪聖學十圖≫에 대하여는 ≪국역퇴계집≫의 譯本과[62] 李相殷博士의 譯解가 ≪退溪學報≫ 第二輯에 發表되어 있어 쉽사리 볼 수 있다 [63] 本稿에서는 李博士가 다루지 아니한 ≪聖學十圖≫의 成立·內容·引用書 그리고 그 異版本과 存本을 中心으로 考察할까 생각한다.

ㄱ. 成立

이 ≪聖學十圖≫를 退溪가 만든 動機는, 宣祖元年戊辰(1568) 12月에 宣祖에게 이 책을 바치면서 함께 올린 <進 聖學十圖 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 重要한 줄거리를 보면

> · 聖學은 큰 端緖가 있고 心法은 지극한 要領이 있읍니다 後世의 人主로서 天命을 받아 天位에 올랐으면 그 責任이 얼마나 至重·至大한 것인데 人臣된 사람으로서 임금을 끌어 道에 引導하려는 者는 진실로 그 마음을 百方으로 쓰지 않는 이가 없읍니나 臣은 이름이 잘못 傳해지어 講筵의 重任으로 부르시니 기왕 의람되이 이를 받게 되은즉 聖學을 勸導하고 宸德을 輔養하여 堯舜의 理想에 이르기를 期함은 비록 사양하려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옛 聖人·君子가 聖學을 밝히고 心法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고 圖說을 지어 사람에게 人道의 門과 積德의 基를 보여준 것이 世上에 傳해지어 해와 별 같이 昭然하오므로 이에 敢히 이것으로써 左右에 올려 받치 써 옛 帝王들의 「工誦·器銘」의 遺意에 대신 하고저 하오니 或 旣往의 것에 借重하여 將來에 有益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64]

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에게 聖學을 勸導하고 宸德을 輔養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人道의 門과 積德의 基를 알아야 하므로, 옛 賢人 君子가 聖學을 밝히고 心法을 그림 또는 圖說로 지은 바를 빌어서 바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退溪의 마음에는 임금이 배푼 聖恩에 대하여 "忠"으로서 報答하려는 뜻이 역역히 비치고 있다. 이어 退溪는 이 ≪聖學十圖≫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밝히고 있으니 같은 <進劄>에

>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 일곱 가지를 골라 얻었읍니다 그 中 「心統性情」은 程氏圖에 因하여 臣이 만든 두개의 小圖를 붙였고 그 남어지 셋은 비록 臣이 그림은 만드렸사오나 글과 뜻은 前賢들이 이미 著述하여 條目 規劃이 세워진 것이요 臣이 創造한 것은 아닙니다.

62) 註29同書, I pp 129~159.
63) 李滉, 李相殷 譯解, "退溪先生圖說 聖學十圖譯解", 退溪學報, 第二輯, (1974 2), pp 101~170
64) 上揭 譯文 pp 108~112에서 抄出함
65) 上同

合하여 聖學十圖를 만들고 그림마다 밑에 愚見을 붙쳐서 삼가 淨寫하여 사람에 맡겨 올리나이다. [65]

라한 것을 보면, 모두 十圖인 바 그 중에서 七圖는 다른 사람의 그림을 고른 것이고, 나머지 三圖는 退溪가 손수 그린 그림인 것을 밝히고 있다.

退溪는 이 ≪聖學十圖≫를 宣祖에게 받친 다음 해(1569) 3月에 判中樞府事를 除授받자 謝恩하기 위하여 入對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事實을 임금에게 다시 아뢰고 있으니, <年譜>에

臣 前日所進聖學十圖 非臣私見 皆先賢所爲 其間 臣只補一二圖[66]

라 하고, 또 임금과 ≪聖學十圖≫의 內容에 관하여 얘기가 있었음을 보아도 더욱 確實하다.

退溪는 이 ≪聖學十圖≫를 完成하였으나 病中이기에 손수 받치지 못하고 사람을 대신 보내어 받쳤으며, 글씨 역시 病中이기에 端正하게 못썼으며 字行과 字形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같은 <進箚>에서 밝히고 있다. 이 ≪聖學十圖≫가 임금에게 嘉納되었으면 그 原本을 經筵官들에게 改補하기를 부탁하고 寫字官으로 하여금 淨書케하여, 이를 屛風으로 만들거나 粧貼으로 꾸며 임금의 左右에 둘 것을 아울러 바라고 있었다.

이 마지막 所願들은 제대로 임금에게 嘉納되었으니, ≪實錄≫에 보면

上以爲甚切於爲學 命作屛帖[67]

이라 하였고, 또 退溪의 <年譜>에도 같은 글로

上以爲甚切於爲學 命作屛帖以入[68]

이라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聖學十圖≫를 屛帖으로 만드는 일은 退溪 生存의 宣祖時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뒤의 여러 王들도 행한 일이 있었으니, 光海君時에도

政院啓曰 聖學十圖 當造屛 傳曰 命吳竑·趙希逸更書以入 [69]

이라 하였고, 仁祖時에도

66) 影印本, 四 p 147
67) 實錄, 21, p 220下左 宣祖2年己巳 9月甲戌.
68) 影印本, 四 p 145
69) 實錄, 32, p 152下左. 光海君5年癸丑2月癸巳

聖學十圖　上曰 洪範及此圖本 欲書置于座側 而作帖 不若作屛之 使於觀省 令王堂書入[70]

이라 하여 바로 만들게 하였으며, 얼마 후에

上曰 聖學十圖及洪範等書 已作屛置之左右 [71]

라고 臣下의 질문에 答한 것을 보면, 이 때에도 곧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또 正祖 때에도 奎章閣에서 大小 두가지를 重刊케하여 역시 屛風으로 만들게 하였으니 ≪實錄≫에

令內閣重刊大小二本 粧爲御屛[72]

이라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歷代 王들은 退溪의 이 ≪聖學十圖≫ 屛帖을 左右에 두고 항상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王들에게 關心을 많이 갖게한 ≪聖學十圖≫를 "그러면 退溪가 언제부터 짓기 시작하였을까"하는 疑問이 일어난다. 그것은 退溪의 <年譜>를 분석하고 또 ≪聖學十圖≫에 넣은 文献과 插圖등 內容의 검토가 이루어지므로서 可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두가지 資料를 검토하여 보면, 대체로 退溪가 53歲되던 明宗8年(1553)頃부터 그 실마리가 일기 始作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까닭은 이 해 4月에 大司成職을 맡았으며 또 四學에 通文을 내어 學生들을 諭하였을 뿐만 아니라, 10月에는 鄭之雲의 ≪天命圖≫를 改訂하였고 그 以後에 계속하여 ≪聖學十圖≫의 內容에 有關한 여러가지 論辨이 나타 남을 보아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著作으로만은 確實하다 할 수 없겠으니, 진작 圖解를 確定的으로 始作하였다고 하는 時期는 明宗8年 보다 12年後인 明宗20年(1565) 즉 退溪가 65歲되던 해의 4月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退溪의 <年譜>에

書敬齋箴圖·白鹿洞規圖 名曰室 皆揭諸玩樂齋壁上[73]

이라 記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退溪는 宣祖가 卽位하던 戊辰年(1568) 8月에 弘文館大提學 等의 職을 兼任하면서 王에게 오늘날 ≪戊辰封事≫로 傳하는 六條의 上疏를 올리면서 그 중요한 줄거리는 이 ≪聖學十圖≫에서 다루려는 바와 거의 같은 表現을 하고 있다. 즉 退溪가 平素에 늘 지니고 있던 愛君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70) 實錄, 33, p 531上右　仁祖元年癸亥5月乙未
71) 實錄, 34, p 23上左　仁祖3年乙丑8月甲申.
72) 實錄, 47, p 226　正祖23年己未12月壬子
73) 影印本, 四 p 131

고 말할 수 있다. 또 ≪年譜≫에서, 같은 해(1568) 9月에 侍講한 <程子四箴>, 十一月에 侍講한 ≪小學≫ 그리고 같은 달에 校正한 ≪西銘≫등에 관한 記事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聖學十圖≫를 이 時期에 거의 完成하지 않았나를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聖學十圖≫는 宣祖元年戊辰(1568) 12月에야 임금께 받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받친 날자에 대하여도 두가지 서로 다른 記錄이 있다. 한가지는 ≪實錄≫인데 宣祖元年戊辰(1568) 12月朔乙亥 條에서

李滉進箚 上 聖學十圖...[74]

라 하여 12月 1日乙亥에 받친 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며, 다른 한가지는 退溪의 <年譜>로서 二年戊辰(先生六十八歲) 11月庚申의 記事에 이어

十二月 再告·三告 皆不准辭 庚寅上 聖學十圖幷箚子.[75]

라 記錄하여 庚寅 즉 12月 16日에 받친 것으로 되어있다 1日과 16日의 두가지 날자를 두고 생각하면 ≪實錄≫上의 1日이 맞지 않나 생각된다.

退溪가 ≪聖學十圖≫를 만들고 난 다음 高峰 奇大升에게 보내어서 틀린 곳이 있으면 指摘하여줄 것을 바란 便紙가 ≪兩先生往復書≫에

今送十圖 如有謬誤處 指破回示何如 滉[76]

이라 있다. ≪高峰先生年譜≫에서는 宣祖元年(1568) 12月에

是月 論聖學十圖[77]

라 하여, 退溪가 宣祖에게 받친 같은 12月로 되어 있어, 아마도 宣祖에게 받친 다음 別稿本을 高峰에게도 보내어 改訂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던 高峰과 退溪 사이에서 오고간 書簡中에 ≪聖學十圖≫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退溪 生存時에 高峰의 얘기도 많이 參考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ㄴ. 內容과 引用書

≪聖學十圖≫의 內容은 그 譯文에 의하면 대체로 짐작하겠거니와 大體로 每圖 끝에

74) 實錄, 25, p 412下右 宣祖元年戊辰12月朔乙亥
75) 影印本, 四 p 144.
76) 奇大升, 高峰全集 附 服齋集·謙齋集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7, 影印本) p 207上 "上白 叅議宅 "
77) 上揭書, p 13.

있는 退溪의 글을 보면 더욱 分明하여질 것이다

退溪는 이 ≪聖學十圖≫를 크게 두가지로 區分하고 있으니, 하나는 第五圖末에

以上 五圖 本於天道 而功在明人倫 懋德業

이라 하야 天道에 根本을 두고 人倫을 밝히고 德業을 힘쓰는데 功이 있음을 圖說한 第一~五圖의 部分이며, 다른 한가지는 第十圖末에

以上 五圖 原於心性 而要在勉 崇敬畏

라 하야, 心性에 根源을 두고 日用에 힘쓰고 敬畏를 높이는데 있음을 圖說한 第六~十圖의 部分이다 다시 말하자면 退溪는 天道와 心性의 두가지를 圖說하면서 聖學의 端緖와 心法의 要領을 밝히려든 것이다. 이와 같은 內容으로된 ≪聖學十圖≫의 차례는 ≪實錄≫[78]과 退溪의 <年譜>에[79] 있는 記事에 따르면,

一 太極圖, 二 西銘圖, 三 小學圖, 四 大學圖, 五 白鹿洞規圖, 六 心統性情圖, 七 仁說圖, 八 心學圖, 九 敬齋箴圖, 十 夙興夜寐箴圖

의 順序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現在 남은 刊本中 最古本으로 짐작되는 啓明大學藏本과 日本에서 承應4年(1655) 3月에 刊行한 木板本은 이 차례대로 刊行되었다. 그 中 後者는 ≪戊辰封事≫와 合刊한 책의 影印本이 있어 쉽사리 찾아볼 수가 있다[80]

그런데 金烋가 編纂한 ≪海東文獻總錄≫의 解說에서는 ≪聖學十圖≫의 全十圖中 第七圖와 第八圖의 順序가 서로 바뀌어져 있으며,[81] ≪退溪學報≫ 第二輯에 影印한 책 역시 바뀌어져 있다[82] 그 뿐만 아니라 後代의 刊本中에는 이 바뀐 順序대로 刊行한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原本의 順序대로 刊行하였다 하드라도 製册時에 <心學圖> 다음에 <仁說圖>를 두고, 番號도 "八"을 "七"로·"七"을 "八"로 加筆한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順序가 바뀐 것에 대하여 阿部吉雄씨는

日本刻本은 第七心學圖 및 圖說 (元의 程復心作), 第八仁說 및 圖說 (朱晦庵作)의 順序로 되어 있으나, 이는 李退溪의 最初의 說에 따른 것으로, 後年 李退溪는, 奇大升의 正意에 의하여 第七에 仁說圖, 第八에 心學圖를 두고, 順序를 正으로 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을 認定하여 이를 고치고 있다 [83]

78) 實錄, 前 67同
79) 影印本, 四 p 145
80) 註15同書, 下 pp 248~265
81) 金烋, 前揭書, p 354.
82) 註63同文, pp 153, 157
83) 註15同書, 下 卷首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根據는 찾을 수 없으나 宣祖年庚午(1569)에 退溪가 金就礪에게 보낸 書簡에서 보면, 高峯이 "深衣製造에 관한 것을 물었다"고 쓰고 뒤이어

> 第七心學圖爲八
> 第八仁說圖爲七
> 細札之存 何以有妨於忙屛看耶 此獨君之意耶 抑諸公皆以爲然耶 ..[84]

라 한것으로 보아 金就礪나 그의 同僚들의 意見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이 차례를 바꾼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退溪가 李珥에게 보낸 書簡에서 쓰고 있다. [85]

退溪가 前述한 <進劄子>에서 말한데로 이 ≪聖學十圖≫의 그림 중에서 七個圖는 先賢의 著作에서 빌린 것이며, 三個圖는 退溪가 그린 것이다. 이에 대하여 徐有榘는 ≪鏤板考≫에서

> 採 周子 太極圖, 朱子 白鹿洞規圖·仁說圖, 程復心 西銘圖·心統性情圖·心學圖, 王柏 敬齋箴圖, 權近 大學圖. 益之以滉所著 夙興夜寐箴圖·小學圖[86]

라하여 退溪가 지은 바는 두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들은 ≪聖學十圖≫의 全文을 차례로 檢討하면 밝혀질 것이다.

(1) 第一 太極圖 (第1圖參照)

第一圖는 <太極圖>이다. 圖의 左右에는 說明이 있으니 李相殷博士 에의하면 退溪가 說明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87] 圖의 다른 面에는 周濂溪敦頤가 撰한 <太極圖說>이 있고, 이어 한字 나려서 朱熹의 글이 있으며, 계속하여 行을 달리하고 白圓圈(○)으로 始作한 退溪의 글이 있다. 이 退溪의 글 첫머리에

> 右 濂溪周子自作圖幷說

이라하여 <太極圖>와 <太極圖說>의 出處를 밝히고 있다. 이것을 보면 <太極圖> <太極圖說> 모두가 周敦頤의 손으로 된 것을 引用한 것 같다.

≪太極圖說≫은 朱子가 集解한 책이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88] 慶州 淨慧寺에서 刊行한 책도 있다[89] 退溪가 어떤 版本을 利用하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明宗

---

84) 影印本, 二 p. 122
85) 上揭書, 一 pp 300~301
86) 徐有榘, 前揭書, p 85
87) 註63同文, p 118
88) 詳說古文眞寶大全 卷之十 後集 1 22A~24에도 있다. 이 大全은 이미 高麗때부터 들어온 책이다.
89) 鄭在烈 編, 金鰲勝覽 (大邱: 1936, 石印本) 1 50A에 「太極圖. 慶州淨惠寺 今移在王山書院」이라고 册板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5年(1555) 5月에 奭祥이 임금에게 올린 ≪太極圖≫가 있었으니,[90] 退溪가 이 책을 參考하였을 可能性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太極圖>를 싣은 原典인 ≪性理大全書≫의 卷首에 있는 그림을 利用하였을 可能性이 더 깊다. 이는 ≪退溪生先言行錄≫에서 李德弘에게 하신 말씀 中에

性理大全中 太極圖說 乃吾所啓發 [91]

이라고 하였고, 또 ≪退溪先生文集≫에서 李德弘에게 答한 書簡에

. 見性理大全太極圖說 . [92]

이라 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다. 退溪가 본 ≪性理大全≫은 故帙과 新帙 두가지가 있었던것 같으니, 조카인 李完에게 보낸 答書속에

性理大全 故帙五 新帙六 . [93]

이라 한 것을 보면 故帙은 5册 新帙은 6册이 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性理大全≫은 그 具名이 ≪性理大全書≫이며 지금도 陶山書院에 그 零本이 남아 있다. [94]

이 책과 결들여 退溪가 明宗3年(1548) 10月에 豊基郡守가 된 다음 해(1549) 12月에 白雲洞書院으로 書籍을 頒降하도록 監司에게 啓聞을 請한 結果 ≪性理大全≫ 등의 책을 下賜받은 일[95]이 있는 것은 退溪가 ≪性理大全≫에서 <太極圖>를 參考하였다는 事實을 더욱 깊게 證明할 수 있지 않을가 한다.

그리고 李彦迪이 일찌기 ≪元朝五箴≫과 함께 <論太極書>五篇을 지은 일이 있는데 退溪가 이 책을 본 일이 있는 것은 ≪月沙集≫속에

元朝五箴及論太極書五篇 .. 退溪先生 嘗論此書曰 [96]

이라 말한 句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또 退溪가 禹景善의 질문에 答한 바[97]와, ≪天命圖說≫의 <後叙>에서 言及한 바,[98] 그리고 奇高峰과의 問答 <後

90)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2), p 54
91) 影印本, 四 p 178.
92) 上揭書, 二 p 228
93) 上揭書, p. 318.
94) "陶山書院藏書目錄", 退溪學硏究, 第二輯, (1974 12), p 205
95) ㄱ 影印本, 四 p 121
ㄴ 註90 同書,
96) 李廷龜, 月沙先生集 (肅宗46跋, 木板本), 卷之四十一 "晦齋先生五箴忘機堂書後跋".
97) 影印本, 二 p 157
98) 上揭書, p 321

論>에서 言及한 바[99] 등을 綜合하여 본다면 이 <太極圖>와 <太極圖說>에 관한 退溪의 硏究가 深奧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2) 第二西銘圖 (第2圖參照)

第二圖는 <西銘圖>이다. 圖는 <上圖>와 <下圖>로 나누어져 있다. 다른 面에는 <西銘>이 있고, 한字 나려서 朱子·陽龜山·饒雙峰의 解說을 引用하였고, 行을 달리하여 白圓圈으로 始作한 退溪의 說明이 있다. 이 說明에서 退溪는

右銘 橫渠張子所作 初名訂頑 程子改之爲西銘 林隱程氏作此圖

라 하여, <西銘>은 橫渠 張載가 만든 것이고, <西銘圖>는 程林 隱復心이 만든 그림임을 밝히고 있다.

<西銘>은 ≪古文眞寶≫의 後集에도 收錄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알려진 글이다.[100] 退溪가 參考한 것은 이 ≪古文眞寶≫의 글이라기 보담도, <第一 太極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性理大全≫의 卷四에 있는 原典을 직접 參考한 것으로 짐작한다. 이 때에 본 原典이 唐本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는 退溪가 李楨에게 答한 問目속에서

..見性理大全 西銘小註 朱子問仁於延平書也 在此唐本作通 當從唐本爲是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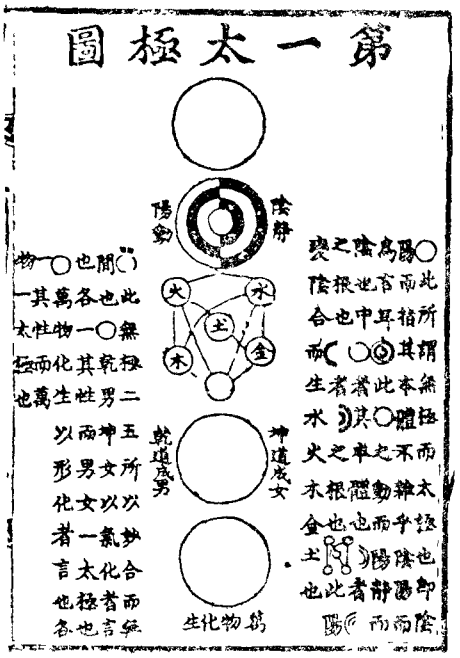
이라 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退溪가 ≪聖學十圖≫를 宣祖에게 바친해 (1568)의 11月 癸丑에 <西銘>을 校正한 일이 있으니, 退溪의 <年譜>에

癸丑 入弘文館校正 西銘[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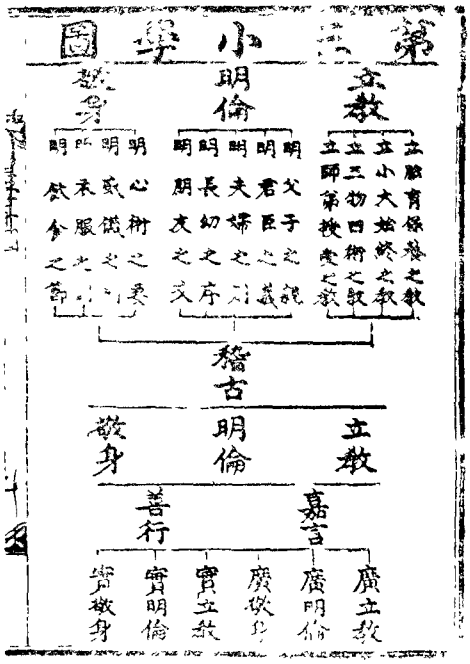
이라 하였고 그 註에 "마침 西銘을 講하게 되었는데 病으로 사양하고 弘文館員과 함께 校正한 다음에 講하기로 하였다"는 記事와 "<西銘考證>을 參考로 만들어 두었다" 라는 要旨의 글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退溪의"<西銘考證>은 文集 속에도 收錄되어 있으며[103] 이를 單行本으로 刊行한 것도 있다 <西銘圖>는 退溪가 임금에게 올린 直後에 곧 改圖가 된것 같으니, 宣祖 1年已에 孫子인 安道에게 보낸 書簡에

進上時 如西銘等圖追改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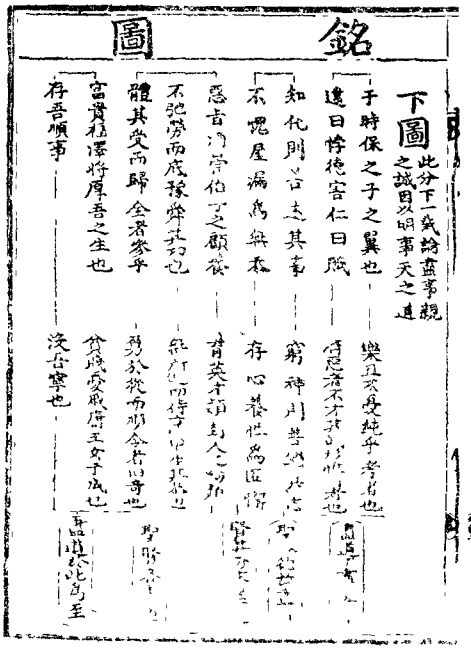
99) 上揭書, 一 p 421
100) 註88同書, 1 25A, 26A
101) 影印本, p 515.
102) 上揭書, 四一 p 144
103) 影印本, 一 p 218~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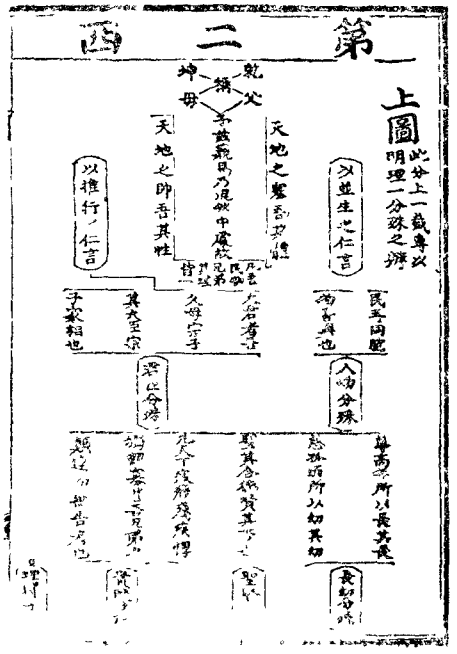


第1圖 第一太極圖



第3圖 第三小學圖





第2圖 第二西銘圖

라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第三小學圖(第3圖 參照)

第三圖는 <小學圖>이다. 圖의 나른 面에는 <小學題辭>가 있고, 한字 나려서 朱子의 ≪大學或問≫의 말을 引用하였으며, 行을달리하여 白圓圈으로 시작한 退溪의 글이 있다. 그 글에서 退溪는

右 小學 古無圖 臣 謹依本書目錄 爲此圖 以對大學之圖 又引 朱子大學或問 .

이라 하여 <小學圖>는 ≪小學≫의 目次를 가지고 손수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다.[105] 이 <小學圖>는 다음 第四圖인 <大學圖>와 對를 이루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宣祖元年(1568) 11月 戊申日 夕講에 入侍하여 啓한 말씀중에

小學·大學 爲聖學之始 [106]

라 한 것과 一脈相通한 생각에서 ≪聖學十圖≫에 包含 하였든 것 같다.

이 ≪小學≫을 우리나라에서 刊行한 것은 그 版種이 수없이 많다. ≪小學≫은 ≪三綱行實≫등과 함께 가장 많이 읽히기도 하였거니와 나라에서도 그 讀書를 자주 勸奬하기도 하였던 책으로 中宗13年(1518)에는 ≪小學≫ 1300件을 印頒[107]하는 등 여러번에 걸쳐 中央과 地方에서 刊行하였던 것이다. 이들 여러가지 版本中에서 退溪가 參考한 版本은 지금 陶山書院에 所藏하고 있는 黑口 木板本인 ≪小學集說≫[108] 또는 明版本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또 <小學圖>에 따른 朱子의 引用文中 ≪大學或問≫은 陶山書院에 지금도 있는 두가지 木版本[109]중의 하나이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版本일 可能性이 클 것 같다.

(4) 第四 大學圖 (第4圖 參照)

第四圖는 <大學圖>이다. 圖의 다른 面에는 <大學經>이라하야 ≪大學≫의 經文을 싣고, 이어 한字 나려서 ≪大學或問≫에 있는 朱子의 글을 引用한 다음, 行을 달리하여 白圓圈으로 始作하는 退溪의 글이 있다. 거기에서 退溪는

104) 上揭書, 二 p 315
105) 上揭書, p 46 및 67에 보면 「 何氏小學圖 」, 「 小學圖何氏註 」 등으로 言及한 일도 있다
106) 上揭書, 四 p 144
107) 註90同書, p 46.
108) 註94同文, p 211
109) 上揭同文, p 202

右孔氏遺書之首章 國初 臣權近作圖 圖章下所引 或問通論 大小學之義說 見小學圖下

라하여 <大學圖>는 陽村 權近도 그린 일이 있다는 것을 밝혀 놓았다.

退溪가 引用한 ≪大學≫의 經文이나 朱熹의 ≪或問≫역시 우리나라에서 여러번 刊行한 일이 있거니와 그 중에서도 陶山書院에 所藏하고 있는 여러가지 ≪大學章句大全≫이나 ≪大學或問≫ 등은 退溪가 직접 利用하였을 可能性이 크다

退溪가 ≪大學圖≫를 그리기 위하여 參考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陽村 權近의 ≪入學圖說≫에 대하여, 明宗4年(1549)에 姪子 金惇叙에게 보낸 答書를 보면

陽村學術淵博 爲此圖說 極有證據 [110]

라 하여, 陽村의 學術이 넓고 圖說은 證據가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또 ≪聖學十圖≫가 이루어지기 몇해 前인 明宗19年(1564)에 李楨에게 答하면서 보낸 <別紙>에의하면

滉曩見陽村先生入學圖說 有此說 [111]

이라 하야 ≪入學圖說≫에서 본 ≪大學≫의 格物致知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이어

.權陽村入學圖說可考也 . [112]

라고 陽村의 ≪入學圖說≫이 參考할만 함을 言及한 것으로 보아, 退溪가 <大學圖>를 그리면서 ≪入學圖說≫을 參考하였을 것은 짐작할 수가 있겠다 또 退溪가 宣祖에게 ≪聖學十圖≫를 바친 다음 해인 宣祖2年 金就礪에게 보낸 書簡에서

於前日 大學圖改之 [113]

라 한 것을 보면, 退溪가 ≪聖學十圖≫에 收錄한 <大學圖>를 손수 한번 고친 일이 있었든 것으로 보인다.

어쨌던 退溪가 <大學圖>를 그릴 때에 陽村의 ≪入學圖說≫을 參考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以上, 退溪가 본 ≪入學圖說≫이 어떠한 刊本인가가 궁금하다. ≪入學圖說≫ 역시 退溪 生前에 여러번 刊行된 책이고 보면, 退溪가 본 版本은 위에 引用한 金惇叙에게 보낸 答書의 날자인 明宗4年(1549)보다 2年前인 明宗2年(1547)에 榮川郡에서 開

110) 影印本, 二 p 62
111) 上揭書, 一 p 303.
112) 上揭書, p 305
113) 上揭書, 二 p 124.

刊한 木版本일[114] 可能性이 가장 크다고 보겠다.

(5) 第五 白鹿洞規圖 (第5圖參照)

第五圖는 <白鹿洞規圖>이다. 圖의 다른 面에는 <洞規後叙>라는 朱子의 글을 引用하였고, 行을 달리하여 한字 내려서 退溪의 글이 있다. 거기에서 退溪는

右規 朱子所作 .. 臣 今謹依規文本目 作此圖以便觀 .

이라 하여 그림은 손수 그린 것을 밝히고 있다 이 事實을 뒷받침할 수 있는 資料가 退溪의 <年譜>에도 나오니, 明宗20年乙丑(1565) 4月에 <敬齋箴圖>와 함께 이 <白鹿洞規圖>를 써서 玩樂齋의 壁에 걸어둔 것은 前記 ≪聖學十圖≫의 "成立"에서 쓴 바와 같다.

退溪가 引用한 <白鹿洞規>는 朱熹의 文集속에 들어 있어 參考하였겠지만, 成均館의 明倫堂에 걸려 있던 것을 보고 이를 <伊山院規>에서

一泮宮 明倫堂 書揭 伊川先生 四勿箴, 晦菴先生 白鹿洞規十訓 .. 此意甚好 ..[115]

라고 한 것을 보면, 일찌기 成均館에서 보고 좋았기 때문에 항상 염두한 바 있었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明宗12年丁巳(1557) 4月에 錦城에서 木活字로 刊行한 高峯 奇大升 編의 ≪朱子文錄≫ 속에 있는 <白鹿洞書院揭示>[116]를 參考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朱子文錄≫의 退溪 手澤本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斷定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이 <白鹿洞規圖>를 ≪聖學十圖≫속에 넣게된 契機의 한가지를 따로이 짐작한다면, 松堂 朴英이 集解한 ≪白鹿洞規解≫를 辨釋한 일[117]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白鹿洞規解≫는 中宗13年(1518)頃에 찍은 活字本[118]과 明宗13年(1558)頃에 刊行한 책이 알려져 있는데, 退溪는 後者의 책을 보고 黃俊良의 ≪白鹿洞規解≫에 관한 答論을 쓴 일도 있다 [119] 그밖에 明宗19年(1564)에 <白鹿洞規>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을 金雪礪에게 答한 書簡[120]등을 생각한다면, 늦어도 이 때까지는 <白鹿洞規圖>에 관한 構想이 이미 서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

114) 註90同書 p 52
115) 影印本 二 p 346
116) 奇大升, 前揭書, p 417
117) 影印本, 四 p 127
118)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 大型活字 (서울 :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76, p 27
119) 註117의 <年譜>에서 言及한 答論의 本文이 影印本 一 p 477에 있다 같은 글은 朴英의 ≪松堂先生文集≫의 여러 版에도 꼭 들어 있다
120) 影印本, 二 p 91.

(6) 第六 心統性情圖 (第6圖參照)

第六圖는 <心統性情圖>이다 이 圖는 上圖·中圖·下圖의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圖의 다른 面에는 <心統性情圖說>이 있고 行을 달리하여 白圓圈으로 始作하는 退溪의 글이 있다 이 글에서 退溪는

右三圖 上一圖 林隱程氏作 自有其說矣 其中下二圖 臣妄竊推原 聖賢立言垂教之意而作

이라하여 <上圖>와 <心統性情圖說>은 程林隱이 그리고[121] 解說한 것이며, <中·下圖>는 손수 그린 것이라 밝히고 있다.

退溪가 ≪聖學十圖≫를 宣祖에게 받친 다음 해(1569) 3月에 宣祖를 만나 뵈온 자리에서 ≪聖學十圖≫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言及하였지만, 그 때 임금이

心統性情圖三 而中下二圖 卿爲之耶[122]

라 물은데 대해

對曰 程復心 四書章圖 有此圖 上一圖卽程圖.. [123]

라고 答한 것을 보면, <上圖>는 ≪四書章圖≫에 있는 책에서 參考한 것 같다. 이 ≪四書章圖≫는 元의 倪士毅이 編輯한 책으로 ≪四書章圖重訂輯釋通義大成≫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中宗20年(1525)에 甲辰字로 印出한 책도 있다,[124] 退溪가 參考한 책이 이 活字本이 아닌가 생각되나 알 수 없다. 아무튼 退溪는 明宗 17年(1562) 3月에 張栻이 編한 ≪二程傳道粹言≫의 跋文도[125] 지은 바 있으므로 程子의 著述을 參考한 것을 의심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된다.

이렇게 <上圖>는 程圖를 취하였지만 <中·下圖>는 退溪가 가장 정성을 들여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이 <中·下圖>에 대하여 高峰 奇大升이 그 改作을 말하자[126] 이에 대하여 論答한[127] 다음 그 의견에 따라 改作하였으나 그림은 임금에게 이미 받친 것이라 原圖는 고치기 어려웠던 것 같다,[128]

121) 上揭書, 一 p 569上에도 「. 又見程林隱心統性情圖 」로 말하고 있다.
122) 上揭書, 四 p 147
123) 上揭書, 同面
124) 註14同書, p 305.
125) 影印本, 二 p 380
126) 上揭書, p 120.
127) ㄱ. 上揭書, 四 p 150
ㄷ. 奇大升, 前揭書, p 240~242.
128) 影印本, 二 p 127下에 「性情圖 . 此圖則以已進御 屢請改爲雜 故前日云云耳」라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7) 第七 心學圖 (第7圖 參照)

第七圖는 <心學圖>이다. 圖의 다른 面에는 <心學圖說>이 있고, 行을 달리하여 한字씩 나려서 白圓卷으로 始作하는 退溪의글이 있다. 退溪는 이 글 첫머리에서

右 林隱程氏 掇取聖賢論心學名言 爲是圖..

라 하여, <心學圖>는 林隱程復心이 지은 바임을 밝히고,[129] 끝으로 程氏의 字는 子見이며 新安人이고 ≪四書章圖≫ 三卷이라는 著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心學圖>는 退溪와 趙穆사이에 오고간 明宗25年乙丑(1565)의 書簡에 따르면

更按 圖乃新安程林隱復心所作 見林隱四書章圖中卷[130]

이라 하여 《四書章圖》의 中卷에있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心學圖>를 退溪가 알아내고자 한 연유는 眞德秀가 지은 ≪心經≫을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31] ≪心經≫은 海州에서 觀察使인 柳仲郢가 보낸 책으로,[132] 그 卷首에는 이 <心學圖> 1張이 있다. 退溪는 明宗21年(1566) 11月에는 그 <後論>을 지어[133] 文川에서 刊行케 한 일도 있었던 만큼 ≪心經≫에 대하여도 많은 研究가 있었던 것이다.

<心學圖說>은 그 文首에 따르면 程復心의 글이 틀림 없으나, 이에 곁드려 생각하여 보아야 할 일은 明宗元年(1546) 11月 10日에 弘文館에서 <心學圖說>과 <大學圖說>을 올린 일이다. [134] 年譜에 따르면 이 때 退溪는 弘文館의 자리를 잠깐 비운 때였던만큼 이 때의 <心學圖說>과 退溪가 ≪聖學十圖≫에 收錄한 <心學圖說>사이에 어떤 連關이 있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 [135]

≪心學圖≫의 차례가 <第八 仁說圖>와서로 바꾸어지게된데 대하여는 前述한 바와 같다. 이 <心學圖>만 單行本으로 公州에서 刊行한 일이[136] 있음도 附記한다

---

129) 上揭書, p 530 및 561, 二 p 259에서도 言及한 글이 있다.

130) 上揭書, 一 p. 559

131) 上揭書 p. 378下에서 「 滉少時得心經 而愛此圖 .」라 하였고, 또 四 p. 169에서 「先生 . 嘗訪上舍姓黃人 始見心經附註 」라 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132) 上揭書, 一 p. 558下에서 趙穆에게 答한 書簡에서 「...心經 . 近西海柳監司印寄來一件 ..」이라 있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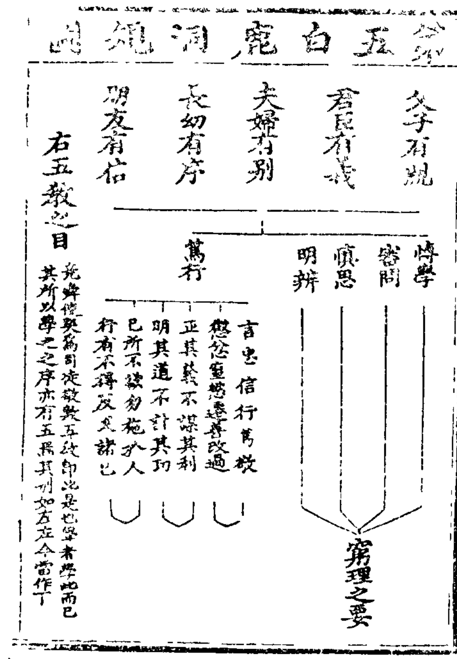
133) 上揭書, 四 p. 133上, 丙寅先生四十六歲 十月 條.

134) 註90同書, p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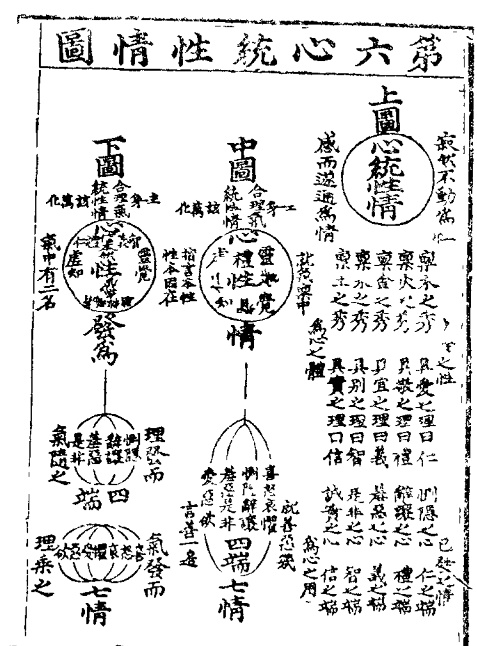
135) 影印本, 一 p. 323上에 있는 李凞에게 보낸 答書에 「寄示心學圖得見 所未見荷幸良多 但未知所傳玉堂本以爲是何人所作 金而精云 曾見某人有此書乃錢塘李氏元綱字伯紀所作 不知果然否」라 한 것을 보면 退溪가 못보신것 같기도 생각된다.

136)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薪巷文庫本 ≪册板置簿册≫의 公川 條에 보면 「心學圖 白紙 二丈半」으로 되어 있다. 이 ≪册板置簿册≫은 1708年頃 寫本이므로 ≪心學圖≫는 退溪가 돌아가신 다음에 刊行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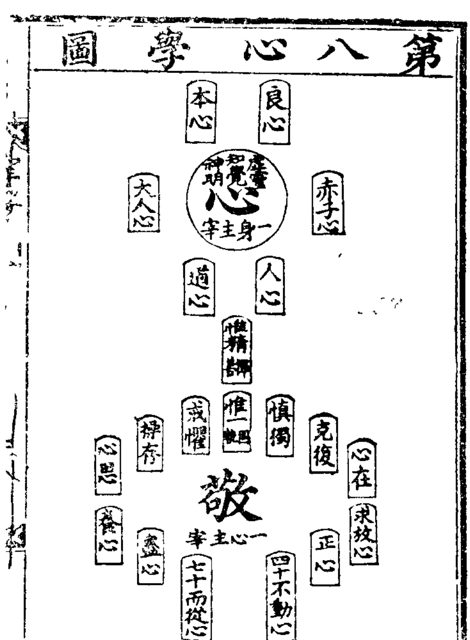
第4圖 第四大學圖



第5圖 第五白鹿洞規圖



第6圖 第六心統性情圖



第7圖 第七(八)心學圖

(8) 第八 仁說圖 (第8圖 參照)

第八圖는 ≪仁說圖≫이다. 圖의 다른 面에는 <仁說>二首가 있고, 行을 달리하여 한字씩 낮추어 白圓圈으로 始作하는 退溪의 글이 있다. 그 글에서 退溪는

右仁說 朱子所述 幷自作圖..

라 하여 <仁說圖>와 <仁說>이 모두 朱熹의 손에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이 朱熹의 <仁說>은 그의 文集속에도 들어 있지만 前述한 ≪朱子文錄≫ 卷上의 두번째에도 들어 있다. 그러나 退溪가 參考한 책은 趙穆에게 준 書簡에

仁人心也 章註又謂一學者條 今公問學 恐倘據語類謂當改問作門 [138]

이라 한데서 ≪語類≫에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語類≫라는 略稱으로 불리우는 책에는 두가지가 있는 바, 그 중 한가지는 ≪朱子語類大全≫으로 모두 140卷이며, 다른 한가지는 ≪晦菴先生語錄類要≫로 모두 18卷이다. "仁"에 대하여 後者에서는 卷之三에서 다루고 있다.

退溪가 宣祖元年戊辰(1568) 8月에 임금에게 六條의 上疏를 올릴 때에도

一曰 重繼統 以全仁孝 .[139]

라 하여, 仁과 孝의 道를 强調한 것으로 보아 ≪聖學十圖≫에 이 <仁說圖>를 넣게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仁說圖>와 앞의 <心學圖>의 차례를 退溪가 나중에 바꾸어 놓은데 대하여는 前述하였기에 略하거니와, 沈能圭(1790~?)가 ≪仁經附註≫를[140] 編纂한 것도 退溪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 책 卷首에도 이 <仁說圖>를 싣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9) 第九 敬齋箴圖 (第9圖參照)

第九圖는 <敬齋箴圖 >이다. 圖의 다른 面에는 <敬齋箴> 1首가 있고, 行을 달리하여 한字씩 나려서 朱熹의 말을 引用하고 다시 行을 달리하여 白圓圈으로 始作한 吳臨川과 眞西山德秀의 말을 引用하였고 마지막으로 退溪의 글이 있다. 그 글에서 退溪는

右箴題下 朱子自叙曰 . 作敬齋箴 書齋壁 以自警文, 又曰 . 金華王魯齋柏.. 作此圖...

---

137) 奇大升, 前揭書, p. 409
138) 影印本, 一 p. 571.
139) 上揭書, 四 p. 138
140) 이 책은 奎章閣所藏의 草稿本으로 寫本 20卷7册으로 되어있다. 請求記號 奎4122.

라 하여, <敬齋箴>과 敍는 朱熹가 지은 것이며[141] <敬齋箴圖>는 王柏이 그린 것임을 밝히고 있다.

朱熹가 張南軒栻의 <主一箴>을 보고 <敬齋箴>을 만들어 齋壁에 써둔 故事를 본따서인지, 退溪도 여기에 나오는 <敬齋箴圖>를 써서 玩樂齋의 壁上에 걸었으니, 退溪의 <年譜>를 보면, 明宗20年(1565) 4月에 前述한 <白鹿洞規圖>의 경우와 같이

書敬齋箴圖 揭于玩樂齋壁上[142]

이라 記錄하고 있다.

이 第九圖에서 引用한 <敬齋箴>은 ≪性理大全≫[143]이나 ≪朱子文錄≫[144]에도 수록하고 있지만, 退溪가 參考한 것은 ≪心經附註≫의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心經附註≫에는 呉臨川과 眞德秀의 글도 있을 뿐만 아니라, 退溪가 <心經後論>을 붙인 책이 刊行된 것을 미루어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退溪가 ≪聖學十圖≫에 싣은 <敬齋箴>은 大山 李象靖이 ≪敬齋箴集說≫[145]을 지으면서 그대로 退溪의 說과 함께 再引用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10) 第十 夙興夜寐箴圖 (第10圖參照)

第十圖는 <夙興夜寐箴圖>이다. 圖의 다른 面에는 <夙興夜寐箴> 1首가 있고, 行을 달리하여 한字씩 나려서 退溪의 글이 있다. 그 글에서 退溪는

右箴 南塘陳茂卿栢所作 臣 今謹倣魯齋 敬齋箴圖 作此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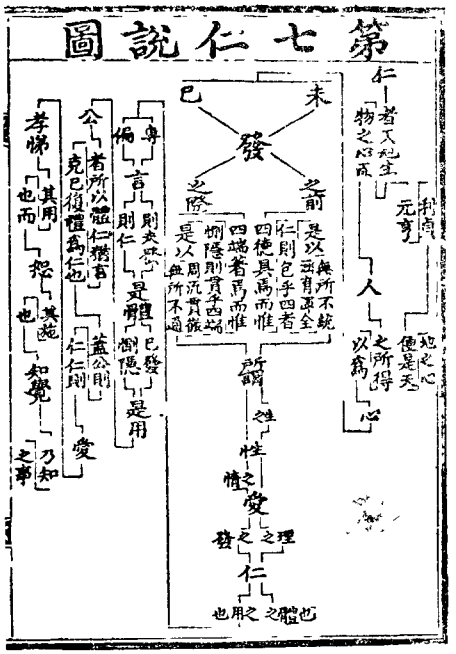
라 하여, <夙興夜寐箴>은 陳栢이 지은 것이며, <夙興夜寐箴圖>는 王魯齋柏의 <敬齋箴圖>를 본따서 退溪가 손수 그린 것을 밝히고 있다

陳栢의 <夙興夜寐箴>은 일찌기 退溪가 成均館이 明倫堂에서 본 일이 있으니, <伊山院規> 第五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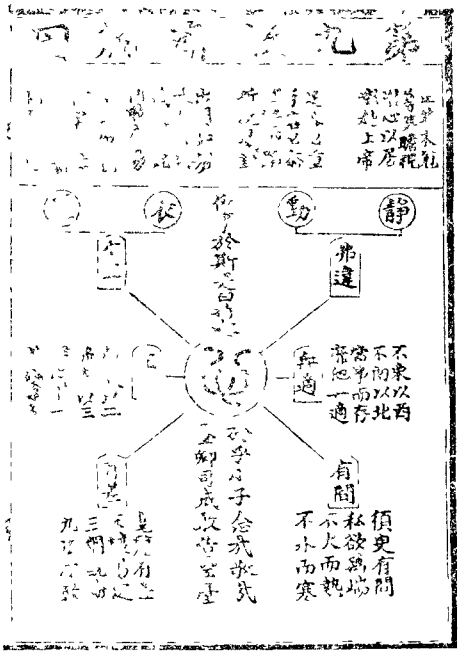
泮宮 明倫堂書揭 伊川先生 四勿箴, 晦菴先生 白鹿洞規十訓, 陳茂卿 夙興夜寐箴 此意甚好 院中亦以此 揭諸壁上 以相規警[1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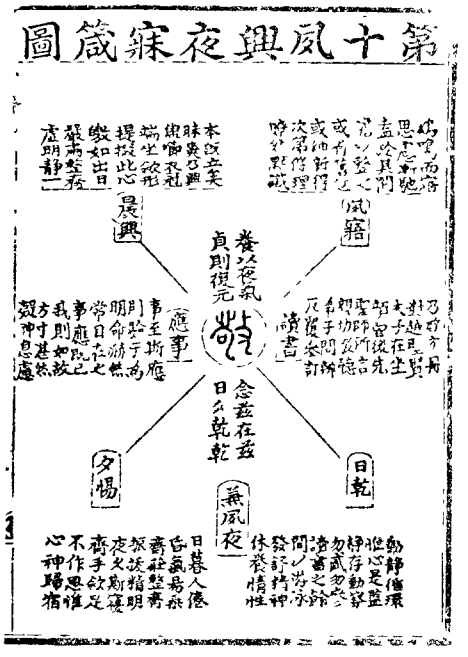
141) 影印本, 三 p 115下에 보면 問目에 答한 글에서도 「敬齋箴朱子大註... 敬齋箴小註 北溪陳氏之說.」이라 밝힌 部分도 보인다.
142) 上揭書, 四 p.131
143) 性理大全書, 卷之七十 l.24A B
144) 奇大升, 前揭書, p.445
145) 李象靖, 敬齋箴集說 (英祖26年序, 木板本) 1册(80張)
146) 影印本, 二 p 346下



第8圖 八(七)仁說圖



第9圖 第九敬齋箴圖



第10圖 第十夙興夜寐箴圖

이라 하야 前述한 <自警制規>와 함께 모았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 院規속에도 넣었음을 알 수 있다.

<夙興夜寐箴>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은 蘇齋 盧守愼이가 이 책의 註解를 지으면서 退溪에게 註解에 대하여 물은 일이다. 이 때 退溪가 盧守愼에게 보낸 明宗9年(1554)의 書簡이 남아있으니 그 書簡에서

> 夙興夜寐箴 舊日亦嘗服膺 而未知條理之密 工程之嚴 若此其至也, 得見註解 分章析句 正議崇論 俠掖肯綮之處 不勝歎服 第於其間 訓語數處 不無有疑 謹爲掇出 而錄在別紙 以取正焉[147]

이라 하야, <夙興夜寐箴>에 대하여는 일찍 마음에 두지 못하였으나 蘇齋의 註解를 보고 條理가 치밀하고 工夫의 過程이 嚴함을 알았다고 밝히고, 註解에서 蘇齋가 쓴 곳에 대하여 別紙로서 여러 곳을 指摘하였음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6年 뒤인 明宗15年(1560)에 盧守愼에게 또 보낸 答書에서는

> 夙夜一箴 爲學之道備矣 [148]

라고 또다시 言及하여, <夙興夜寐箴>이 重要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經過로 보아 退溪가 <夙興夜寐箴>에 남다른 關心을 갖게된 原因의 하나가 蘇齋 盧守愼과의 文通에 있었지 않나 짐작된다.

退溪가 <夙興夜寐箴圖>를 손수 그린 것은 第十圖 끝에 있는 退溪의 글에서 밝혀져 있다고 말하였거니와, 宣祖 2年己巳(1569) 3月 4日에 宣祖를 뵌 記錄의 한가지인 ≪堂後日記≫에서도

> 夙興夜寐箴圖 亦小臣爲之 然用先賢所作箴語 依倣敬齋箴圖而爲之 [149]

라 具體的으로 記錄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만들어진 退溪의 <夙興夜寐箴圖>는 盧守愼의 ≪夙興夜寐箴≫註解가 처음 刊行된 宣祖元年(1568) 12月의 活字本[150]에는 들어 있지 아니 하였으나, 英祖22年(1746)에 校書館에서 ≪夙興夜寐箴≫을 重刊할 때에 英祖의 命으로 退溪의 <夙興夜寐箴圖>를 넣어서 刊行하도록 하였다. 그 때 英祖는 <御製圖下小識>(第11圖 參照)를 지어 그림 뒤에 함께 넣었고, 또 御製의 序文도

> 夙興夜寐箴 南塘陳柏所撰 而先正文純公 李滉 所進 聖學十圖中一也 [151]

---

147) 上揭書, 一 p 285 및 四 p 124
148) 上揭書, 一 p 288.
149) 上揭書, 四 p 212.
150) 註90同書, p 57.
151) 夙興夜寐箴 (英祖22年序, 木板本) 1册(19張)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本 卷首 <御製夙興夜寐箴序> 5張

라 지으면서 退溪의 그림을 논이 말한 바 있다. 高宗3年(1866) 7月에 張福樞이 編纂한 <夙興夜寐箴集說>을 刊行할 때에도 退溪의 <夙興夜寐箴圖> 1張이 插入되었으며 序文에서도

...退陶李先生爲之圖 采入聖學十圖 [152]

라 밝히고, 이어서 退溪의 意見 그대로 分章하고 蘇齋의 本註를 引用하면서 책을 編纂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退溪의 <夙興夜寐圖箴>는 자주 引用된 것을 알 수가 있다.

ㄷ. 異版本과 存本

≪聖學十圖≫는 聖學의 大端을 辨하고 또 心法의 至要를 밝게하였다는 理由뿐만 아니라, 性理學에 꼭 必要한 諸儒들의 說을 圖表化 한 것인 까닭에, 進上을 嘉納한 宣祖를 비롯하여, 以後 여러 王의 命令으로 여러번 刊行되었다. 그리고 退溪의 弟子와 後에 의하여도 여러 곳에서 刊行된 바 있다 이렇게 여러번 刊行한 ≪聖學十圖≫는 자연히 여러가지 異版이 있게 마련이다. 以下 文獻上의 여러 記錄과 實存하고 있는 現存本中 刊本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宣祖2年(1569) 9月 頒賜本

이 宣祖2年 9月에 頒賜하였다는 ≪聖學十圖≫는 內賜記가 있는 實物이 나타나지 않아 자세한 版式事項은 알 수가 없다. 다만 ≪實錄≫에

甲戌 上頒賜 聖學十圖 四十餘件...[153]

이라 있어, 宣祖2年 9月에 40餘벌을 頒賜한 일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退溪가 宣祖元年 12月 1日에 宣祖에게 받친 까닭으로, 곧 刊行케 하였다면 그 해 안으로 刊行하였을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으나 退溪가 이듬 해(1569) 3月에 宣祖를 뵈온 자리[154]에서 刊行하였다는데 대한 말이 全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도 刊行되지 아니한 것 같다 退溪와 奇高峰사이에 오고 간 書簡中에 "四月二十八日" 云云의 書簡 다음에 있는 答書의 別紙에

恐悚 十圖聞 已畢刊 若印頒 有命[155]

---

152) 張福樞編, 夙興夜寐箴集說 (高宗3年序, 木板本). 1册. 卷首에 있는 〈夙興夜寐箴集說序〉 2張.
153) 實錄, 21 p 220下左 宣祖2年己巳 9月甲戌.
154) 影印本, 四 p. 147
155) 上揭書, 一 p 455.

이라 하여 ≪聖學十圖≫가 이미 刊行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하였고, 또 이 書簡을 奇高峰에게 보낸 뒤에 그에게 보낸 또 다른 答書의 末尾에 "七月二十一日" 云云의 날자가 있으며, 또 退溪가 金就礪에게 보낸 答書中에

八月十四日書來 .. 十圖刊畢卽蒙印出 玉粧帖寄惠 感幸不勝爲喩 [156]

라 한 것을 보면, 8月 14日字로 보낸 金就礪의 書簡에서 아마도 ≪聖學十圖≫를 찍고 있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에 印出이 끝나면 作帖까지하여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듯 하다.

以上과 같은 날자를 綜合하여 보면, ≪聖學十圖≫의 刊行은 8月에 이미 始作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또 實錄의 記事에도 9月甲戌에 頒賜하였다고 記錄하였으니, 대개 官刊本의 경우 册을 찍어 進上하면 數日內에 頒賜한 例로[157] 미루어 보아 늦어도 9月初에는 刊行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退溪에게 ≪聖學十圖≫의 校正을 보게 하였고, 또 그 심부름은 孫子 安道가 한 것 같으니, 같은 金就礪에게 보낸 다른 答書에

十圖前來者已校 送于安道矣 今來六張內未校者二張 畢校幷曾校重來者四張 不再校同封遞寄去領取施行 但箚子最末一張 今尙未來何耶 .[158]

라 한데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하여 刊行한 ≪聖學十圖≫는 그 글자들이 굵고 또 찍은 面이 굉장히 길고 컸던 모양 같았으니, 退溪가 이를 안 것은 아해들을 통하여서 ≪聖學十圖≫ 몇幅을 받은 後의 일인 것 같다 [159] 이는 宣祖2年己巳에 西厓 柳成龍에게 答한 退溪의 書簡에

十圖刊畢云 兒輩得數幅寄示 始覺其太長且廣 不便於作帖 舒卷看深恨 當時不審 而今旣已畢 雖追改耳[160]

라 한데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애당초 退溪의 생각에는 글자가 가늘지 않기를 願하였던 것이니, 奇高峰에게 보낸 書簡에

此圖 初謂 字不欲微細 其長廣皆要寬占 以致圖本樣子太大 其於作帖玩聞 殊有不便 適者未及改謀 而刊刻已了 今何得冒瀆訕 而欲改作乎 爲可恨耳[161]

---

156) 上揭書, 二 p 121
157) 註90 同書에 보면 그 例가 많이 있다.
158) 影印本, 二 p. 120下
159) 上揭書, 同面.
160) 上揭書, p 212.
161) 上揭書, 一 p 455.

라 하였고, 이들 두가지 書簡으로 보아 막상 ≪聖學十圖≫가 刊行되고나서 보니 너무 커서 作帖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 것을 알고서는 이미 刊行된 것이라 다시 고치기 힘든 것을 말하고 있다.

(2) 宣祖2年(1569)頃 追刊 上御前本.

前記 宣祖2年 5~9月初頃의 刊本이 刊行된 다음에 한번 쯤 追刊한 일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는 退溪가 孫子인 安道에게 보낸 宣祖2年의 書簡에

> .. 且 十圖畢刊後 當印 上數件 干 御前云 其進上時 如西銘等圖追改 與元本不同處 須一一付標具啓. .[162]

이라 한데서 짐작할 수가 있다. 이때 初刊本에 있던 <西銘圖>등 여러가지의 改作이 있었지 않았나 짐작되나, 그 印本이 나타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3) 宣祖3年(1570)頃 星州開刊本?

退溪가 金就礪에게 보낸 書簡中 宣祖3年에 쓴 答書의 別紙에

> 十圖取惬於人聲亦宜 然更不拙人口則爲幸大矣 小樣圖旣已作之 畢寫送來不妨 但韓準氏無乃不肯寫與耶 觀其意 不樂則千萬勿强囑之爲可 星州開刊事 吾意不慾爲之. .[163]

라 쓴 것을 보면, 이때 星州에서 ≪聖學十圖≫를 開刊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退溪는 開刊을 굳이 願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書簡을 보면 ≪聖學十圖≫는 小樣圖 즉 크기가 작은 책을 따로 베꼈든 것으로 보인다. 이때 小樣圖를 石峰 韓濩에게 베끼라고 하였으나 그가 어떤 理由에서인지 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退溪가 强要하지 말 것은 당부한 것으로 보아 알 수가 있다.

退溪의 ≪聖學十圖≫가 처음에는 크고 긴 形態의 책으로 刊行되어 不便하였다는 얘기는 前述하였거니와, 여기에 나오는 小樣圖는 이러한 크기가 긴 책의 不便함을 줄이기 위하여, 宣祖2年에 바로 준비한 것 같다. 그 해 8月 14日字로 보낸 金就礪의 便紙에 退溪가 答書한 바에 따르면

> ..聞 許太輝寄此圖一件 於李伯春監司 將刊行於此道 亦以欲改作小樣圖 爲辭已囑伯春而停之矣. .[164]

이라 하여, 許曄이 監司인 李陽元에게 보낸 ≪聖學十圖≫를 보고 李監司가 道內에서

162) 上揭書, 二 p 315.
163) 上揭書, p 122下
164) 上揭書, p. 122 上

곧 刊行코자 하므로 그 刊行을 말렸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에 李監司는 ≪聖學十圖≫를 小樣圖로 고쳐서 刊行코자 한 것 같다

이듬 해인 宣祖3年庚午(1570)에 같은 金就礪에게 보낸 退溪의 答書를 보면

十圖小樣 蒙許草示 幸甚幸甚 默觀時人意嚮 於此等事 頓異於前日 道內刊刻事 似無必成之意 然得新樣小本 而善藏之 [165]

라 한것으로 보아, 小樣圖는 서울에서 金就礪 등에 의해 그려져서 退溪에게도 보였던 것 같고, 李監司가 道內에서 刊行하려든 일은 中斷하였거나 始作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經緯등을 綜合하여 볼 때, 道內나 星州에서의 刊行은 一端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

(4) 啓明大學所藏 大字 木板本.

啓明大學에 所藏되어 있는 大字本 ≪聖學十圖≫는[166] 寓目한 책 中에서, 가장 오랜 版本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서 잠간 言及하고자 한다.

不幸스럽게도 이 책에는 刊記가 없으며, 비록 印記가 하나 있지만 희미하여 刊行年代를 推定할 수 없다. 그러나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宣祖5年(1572) 咸興刊本 보다도 紙質이 오랜 것 같고, 板刻의 技術도 精密하며, 또 요사이 橫行하는 小字本과 달리 板形(版型)도 큰뿐만 아니라 圖의 다른 쪽에 있는 說들도 글짜가 모두 크다. 이런 點들을 미루어 보아 初刊의 宣祖2年(1569) 校書館刊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啓明大學所藏本은 木版本으로, 裝幀은 蝴蝶裝이며, 두터운 종이로 褙接하였으니 모두 1帖으로 되어 있다. 접은 크기는 세로가 44*cm* 가로가 36.1*cm* 이다. 第1圖의 圖面을 찍은 紙面의 크기를 보면 세로가 40 4*cm*, 가로 즉 幅이 70.4*cm*이며, 그 版式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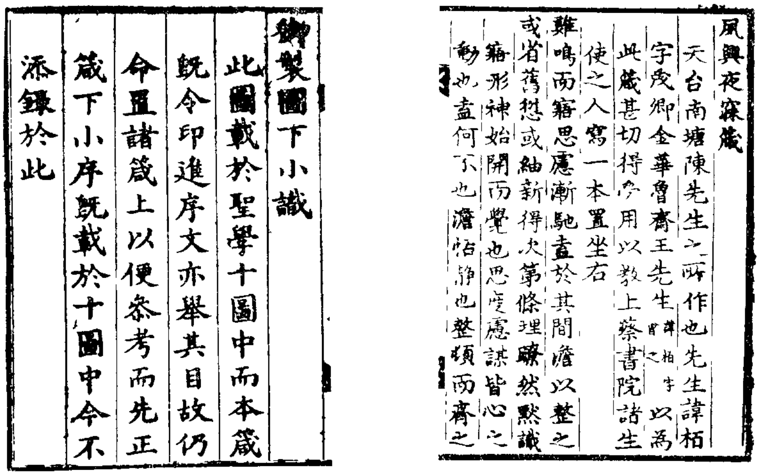
四周双邊. 半匡 : 38.6×67.5*cm*. 版心 . 门口. 無魚尾.

이다. (第12圖 參照) 左邊欄의 左上部와 右邊欄의 右上部에는 各各 「聖學圖 一」이라고 小字로 張次表示를 하였는데 同時에 板刻된 것으로 보아 板木의 板面이 매우 넓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一面이 圖, 그리고 版心을 접어 그 反對쪽 面에는 說만 있는 面이 있어 版式이 특이하다. 따라서 說이 있는 面의 版式을 다시 적어 보면

四周双邊. 半匡 : 38 6×33.5*cm* 有界. 22行 32字. 白圓圈有. 句讀點有. 要語 小白圓 및 黑半圓傍點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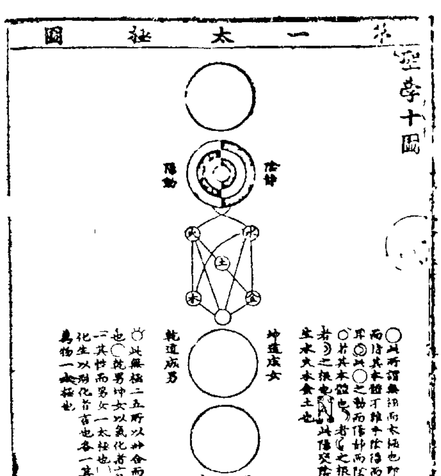
165) 上揭書, p 122 下

166) 未整理本으로 登錄番號 104263이다. 이 책을 利用토록 許諾하신 金南碩館長에게 감사드린다


御製圖下小識
此圖載於聖學十圖中而本箴
既令印進序文亦舉其目故仍
命置諸箴上以便參考而先正
箴下小序既載於十圖中今不
添錄於此

夙興夜寐箴
天台南塘陳先生之所作也先生諱柏
字茂卿金華魯齋王先生(諱柏字會之)以為
此箴甚切得受用以教上蔡書院諸生
使之人寫一本置坐右
雞鳴而寤思慮漸馳盍於其間澹以整之
或省舊愆或紬新得次第條理瞭然默識
寤形神始開而覺也思慮誘皆心之
動也盍何不也澹恬靜也整頓而齊之

第11圖 夙興夜寐箴圖. 御製小識 및 卷首(서울大本)



第12圖 啓明大本 第一太極圖

第13圖 啓明大本 太極極說

와 같으며, (第13圖 參照) 卷首題인 「聖學十圖」는 第一圖의 圖面 右側 上端에 있다. 모두 13面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그 차례가

第一 太極圖
第二 西銘圖
第三 小學圖
第四 大學圖
第五 白鹿洞規圖
第六 心統性情圖
第七 心學圖
第六 仁說圖
第九 敬齋箴圖
第十 夙興夜寐箴圖

의 順으로 되어 있으며, 各各 1面식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各面은 版心을 中心으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오른쪽(右側)은 圖이고, 왼쪽(左側)은 說이다. 每面마다 邊欄밖 右上側과 左上側에 작은 글씨로 된 「聖學圖一」~「聖學圖十」 등과 같은 張次表示가 있다. 이 張次表示의 書名이 「聖學圖」라고 "十"이 略하여 있음이 特異하다.

이렇게 十圖가 끝나고 곧 이어 「進聖學十圖箚字」로 始作하는 箚子 2張(접어서 4面)이 있다. 이 箚子의 마지막에는 「隆慶二年十二月 日」 즉 宣祖元年(1568)에 退溪가 宣祖에게 올린 달까지 表示되어 있다. 이 箚子 各張의 邊欄 밖 右側上部에는 역시 작은 글씨로 「聖學十圖箚字一·二」등과 같은 張次表示가 있다.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箚子의 "子"字가 文首 그리고 張次表示에서 모두 "字"로 되어 있는 點이다.

(5) 宣祖3年(1570)頃 海州刊本

海州에서 ≪聖學十圖≫가 刊行된 일이 있다는 것은, 宣祖18年(1585)年에 木板本으로 刊行된 ≪攷事撮要≫의 海州 條에 記錄되어 있으므로 일찍부터 알려지고 있었다[167] 그러나 이 책이 宣祖 3年頃에 刊行되었을 것이라고, 그 刊行年度를 推定하게 된 것은 後述하는 宣祖5年(1572) 榮川郡 開刊本이 나타난 以後의 일이다. 그 책 第18張 앞面에 있는 許忠吉의 識文 속에

.黃海道觀察使 朴承任 得海州本 印送伊山書院

167) 魚叔權 編, 攷事撮要 (서울 南文閣, 1974, 影印本), 1 36A 以下 同書의 「影印本」으로 略하나.

이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海州刊本은 늦어도 朴承任이 黃海道觀察使로 在任하고 있을 때에 찍어낸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學大百科事典≫의 記錄만을 보고 미루어 본다면, 朴承任은 宣祖4年(1571)의 1年間을 黃海道觀察使로 在任한 것으로 되어 있다.[168] 退溪가 宣祖元年(1568)에 ≪聖學十圖≫를 宣祖에게 올렸고, 그 이듬 해(1569)에 校書館에서 刊行하였다면, 特別한 사연이 없는 限 海州에서의 刊行은 또 1年을 늦추어서 始作하였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刊行은 宣祖3年(1570)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當時의 黃海道觀察使는 같은 ≪韓國學大百科事典≫의 記錄에 따르면 尹斗壽이다.[169] ≪陶山及門諸賢錄≫에 의하면 梧陰 尹斗壽는 그 아우 月汀 尹根壽와 함께 둘이 모다 退溪의 弟子로 記錄되어 있다[170]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尹斗壽가 黃海道觀察使로 赴任하자 스승 退溪의 글인 ≪梅花詩≫·≪陶山記≫와 함께 ≪聖學十圖≫를 刊行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하여 後任으로 赴任한 朴承任이 海州에 있던 板木으로 ≪聖學十圖≫를 찍어 伊山書院으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 嘯皐 朴承任이 黃海道觀察使로 在任하고 있던 宣祖4年(1571)頃을 이 책의 刊年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陶山及門諸賢錄≫의 記錄에 의하면 朴承任 역시 退溪의 弟子 중의 한 사람인 까닭이다[171] 더구나 그는 退溪와 가까운 地域인 榮川의 出身이며, 그의 出身地에 있는 退溪의 祖豆所인 伊山書院으로 ≪聖學十圖≫를 제빨리 印送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推定은 正確한 海州刊本이라는 刊記가 있는 책이 아직 發表되지 않고 있으므로 尹斗壽나 朴承任이 꼭 刊行하였다고 斷言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 이 海州刊本이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까닭으로, ≪聖學十圖≫의 차례나 體裁가 어떤가는 알 수가 없으나, 榮川郡開刊本이 이 海州刊本을 그대로 覆刻하였다고 假定한다면, 榮川郡開刊本과 같은 차례와 體裁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追記 : 本稿의 校正이 끝날 쯤에 高麗大學校 晩松本에서 이 海州刊本이 나와다.

(6) 宣祖5年(1572)咸興刊 木板本.

이 책은 ≪朝鮮典籍誌≫[172]에 따르면 國立中央圖書館에만 所藏되어 있는 孤本[173]이며, 刊記 등 刊行關係人名이 分明이 밝혀져 있는 點으로는 가장 오랜 책이다.

木板本으로 된 이 책은 모두 1册이며, 그 紙面의 크기는 세로가 32.3cm 가로 가23cm

168) 韓國學大百科事典 (서울 : 乙酉文化社, 1972), 3, p 91
169) 上揭書, p 91
170) 影印本, 四 p 402
171) 上揭書, p 327.
172) 尹炳泰 編, 朝鮮典籍誌 (未刊行原稿)
173) 請求記號 貴重書 454 (古朝 17—14)

이다. 第1圖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25.3×20.2cm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細八葉, 單線, 單絲)「聖學十圖」張次「一」

이며, (14圖 參照) 뒷面에 있는 說의 行字數는 12行 20字이고, 句讀點이나 傍點은 없다 (第15圖 參照) 이 책의 차례를 보면

第1~2張이 第一 太極圖.
第3~4張이 第二 西銘圖.
第5~6張이 第三 小學圖.
第7~8張이 第四 大學圖,
第9~11張이 第五 白鹿洞規圖
第11~13張 앞面이 第六 心統性情圖이며, 第13張 뒷面은 비어있고
第14~15張이 第七 心學圖
第16~18張 앞面이 第八 仁說圖이며, 第18張의 뒷面은 비어 있고
第19~20張이 第九 敬齋箴圖
第21~22張이 第十 夙興夜寐箴圖

이고, 바로 이어서

第23~27張 앞面까지에 進聖學十圖箚字가 있다

이 箚子의 끝에는 前述한 啓明大學藏本과 같은 退溪의 進上日字가 없나 마지막 張인 第27張 뒷面에는 이 책을 刊行한 關係官員의 名單이 左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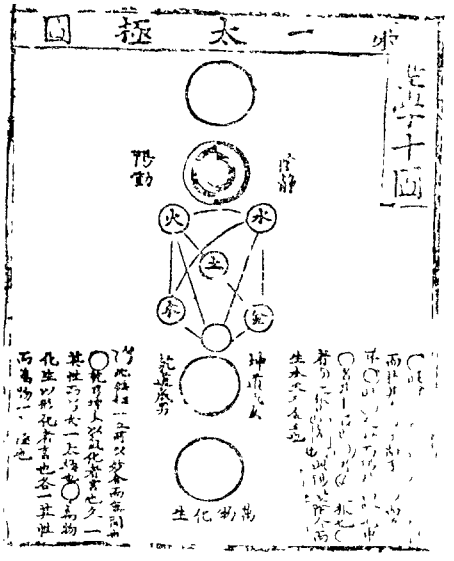
嘉善大夫咸鏡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咸興府尹李友閔
奉列大夫行都事柳德粹
通訓大夫行咸興府判官趙玩
校正宣教郎咸興府訓導河一淸
監董營吏房崔應龍

과 같이 記錄되어 있으며, 그때 「刻手」로 動員되었던 金石乙伊·崔漢儒·河上佐·金龍金·崔世福·金莫汀·金千鶴·朴京 등의 이름도 羅列되어 있다 (第16圖 參照)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刊行한 날자로 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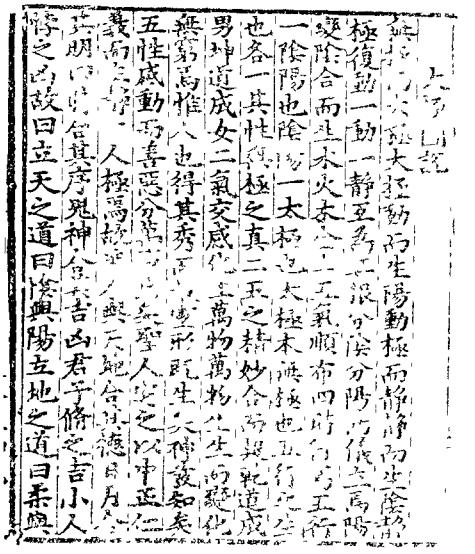
「隆慶六年五月日」

이라는 날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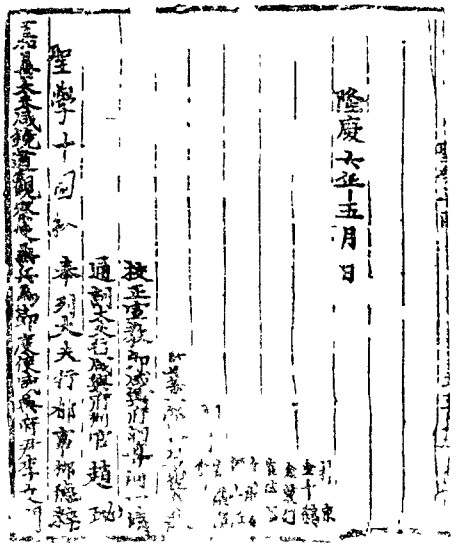
이와 같은 刊行官員의 名單과 날자 등으로 미루어 보아, 咸鏡監司로 있던 李友閔이



第14圖 咸興刊本 第一太極圖



第15圖 咸興刊本 太極圖說



第16圖 咸興刊本 刊行官衙名

가 宣祖4年(1571)에 咸鏡監司로 轉任하자 그 이듬해인 宣祖5年(1572)에 刻手들을 動員하여 雕刻하기 始作하였으며 그해 5月에 刊行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왜 李友閔이가 이 ≪聖學十圖≫를 咸興에서 刊行하기에 이르렀는가 하면, 이는 李友閔과 退溪가 가까운 사이라는 까닭이 아니면 王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理由가 後者의 경우라면 ≪實錄≫에 記事가 있어야 할터인 바 없으므로 確認할 수 없는 反面에 前者인 경우에는 그 可能性이 약간 있다. 退溪의 文集 속에서는 親近함을 立證할 資料를 찾을 수 없었지만, ≪萬性大同譜≫에는 五寒 李好閔이가 이 守坤齋 李友閔의 아우로 되어 있음을[174] 보아, 退溪의 弟子인 李好閔[175]이가 ≪聖學十圖≫의 刊行을 그 長兄인 李友閔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이와 같은 事情으로 刊行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이 宣祖5年 咸興刊本과 前記한 啓明大學藏本을 比較하여 보면, ≪聖學十圖≫의 열가지 그림들은 크기가 모두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그림이 작아진 것은 退溪가 다시 小樣圖로 그린 것을 校正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小樣圖를 底本으로 刊行한 것 같다. 한편 說의 글자는 啓明大學藏本보다 약간 더 커보이니 이 說 역시도 새로이 쓴 底本이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한다 全般的으로 볼 때, 이 咸興刊本은 第七圖 및 第八圖의 順序가 退溪의 舊圖나 啓明大學藏本의 차례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이는 舊圖系 版本의 하나로 간주할 수가 있다.

(7) 宣祖5年(1572) 榮州郡刊 木板本.

이 책은 ≪朝鮮典籍誌≫에 의하면,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 義山文庫, 韓國民族美術硏究所 澗松文庫, 誠菴古書博物館 그리고 日本의 國立國會圖書館 등에 各各 1部씩 所藏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176] 그 밖에 ≪淸芬室書目≫에도 이 刊本을 紹介하고 있다.[177] 그리고 國立中央圖書館에는 原本 所藏處가 알려져 있지 않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은 것도 所藏하고 있다.

榮川에서 刊行한 ≪聖學十圖≫가 있다는 것은 宣祖18年(1585)에 刊行된 ≪攷事撮要≫의 榮川 條에 記錄되어 있어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고,[178] 筆者도 그 刊記를 ≪韓國古書年表資料≫에도 發表한 바 있다 [179]

이제 實査한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藏本[180]에 의하여 그 體裁를 살펴본다면, 線裝

174) 尹稙求 編, 前揭書, 上 p 166.
175) 影印本, 四 p 391
176) 註172同書.
177) 李仁榮 編, 淸芬室書目 (서울 . 寶蓮閣, 1968, 影印本), pp 59~60
178) 魚叔權 編, 影印本 下, 1 42B
179) 尹炳泰 編, 韓國古書年表資料 (서울 國會圖書館, 1969), p 22
180) 請求記號 貴110 6—성학십

方册이며 모두 1册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는 세로가 32 7㎝ 가로가 21 2㎝이다. 이 책은 谷城의 藏書家였던 丁鳳泰의 舊藏이었던 모양으로 丁氏家의 여러가지 印記들이 여러 곳에 찍혀 있다.

이 책 第1張 앞面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24×16㎝ 版心·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聖學十圖」 張次「一」

과 같으며, 版心題가 「聖學十圖」라고만 있을뿐, 圖面 속에도 卷首題가 없다. (第17圖 參照) 그리고 第1張 뒷面부터는 說이니, 이 說이 있는 面의 版式은

有界. 11行 22字. 句讀點有. 要語 小白圈 傍点有.

와 같다. (第18圖 參照)

이 책의 차례를 보면, 第1張부터 第20張에 걸쳐 十個圖를 各各 2張에 1圖分씩 收錄하고 있다. 그중에서 前述한 啓明大學藏本이나 咸興刊本과 차례에서 差異가 나는 點은

第七 仁說圖

第八 心學圖

라 하여, 第七과 第八의 順序가 뒤바뀐 點이다. 이는 아마도 退溪가 奇高峰의 勸告에 따라 順序를 고친 新圖의 차례를 그대로 따른 것 같다. 이 第一~十圖에서 圖만의 配置를 본다면 每圖가 始作하는 첫 張의 앞面에 圖가 있고, 說은 첫張의 뒷面부터 始作 하였다 이 十個圖의 板面上 가장 눈에 뜨이는 點을 들라면, 그 張次表示에 있다. 즉 第1·3·6·7·9~11·13·14·19~20張 등의 張次表示는 下魚尾 속에 陰刻으로 表示되어 있다. 그래서 인지 第1張의 版式表示에서는 下魚尾를 花紋魚尾로 錯覺하여 目錄을 記述하기가 쉽다. 그리고 第16張에는 張次表示도 없다.

이러한 ≪聖學十圖≫의 圖와 說등 모두 20張이 끝난 다음에, <進聖學十圖箚子> 4張이 繼續된다. 箚子의 "子"字는 前述한 版本과는 달리 "子"字로 바뀌어져 있다. 이 箚子의 끝에는 아무런 날자 表示도 없으며, 張次表示 역시 4張 모두가 下魚尾 속에 陰刻으로 彫刻되어 있다.

이 책에는 ≪聖學十圖≫ 모두 24張이 끝난데 이어, 退溪의 ≪戊辰封事≫ 모두 17張이 合綴되어 있다. 張次도 새로이 「一~十七」이라고 매겨져 있으나, 처음부터 同時에 刊行한 것 같다 이 ≪戊辰封事≫가 끝난 다음, 張次表示가 「十八」로 되어 있는, 이 책의 刊行關係記錄들이 나온다. 즉 第18張의 앞面 第1行부터

都斯文丈貴海道觀察使朴承

任得海州本印送伊山書院有
志後學爭請謀鋟梓廣布予樂其
篤志令措手模刻爾
隆慶六年壬申八月 日榮川郡
守許忠吉識

라는 識文과 뒤이어

校正
　進士李　完
　生員趙　穆
　幼學許霖弼

라는 校正關係人名, (第19圖 參照) 그리고 第18張 뒷面에

刻手禹　夢
　黃雲進

이라 있고, 木記로된 刊記가

隆慶壬申秋
榮川郡開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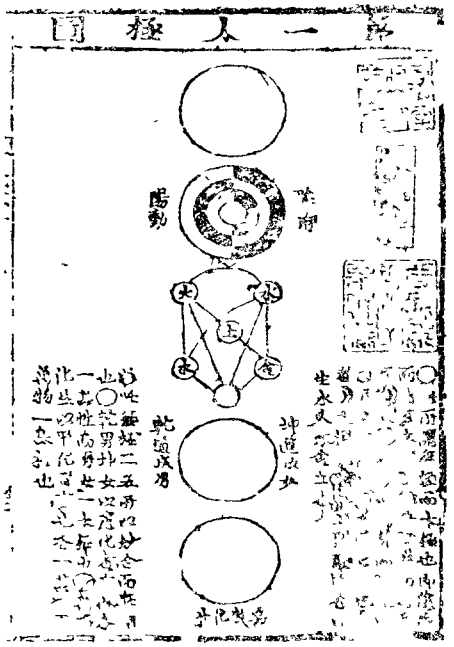
이라 彫刻되어 있다. (第20圖 參照) 이에 따르면 黃海道觀察使인 朴承任이 海州에서 ≪聖學十圖≫의 印本을 伊山書院에 보내어 왔으므로 宣祖5年壬申(1572) 8月에 榮川郡守인 許忠吉이가 有志들의 請에 따라 刊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을 刊行한 南溪 許忠吉은 退溪의 弟子이며, ≪聖學十圖≫를 刊行하였다는 事實은 ≪陶山及門諸賢錄≫에 있는 그의 略傳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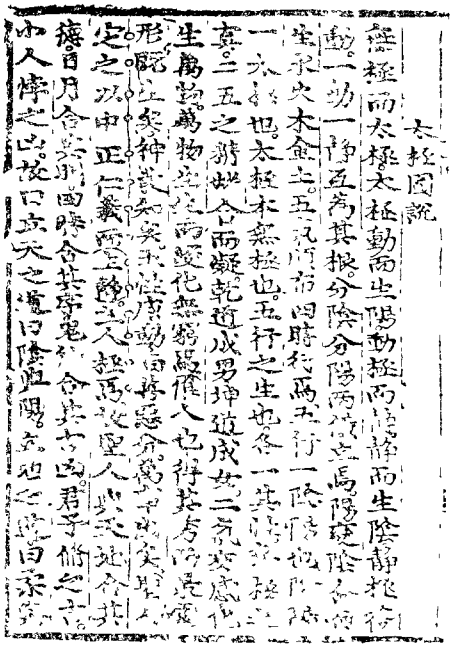
..壬申拜榮川郡守 時先生已易簀 公首先奉安位版於伊山書院 又以嘯皐朴公 所印送 聖學十圖 刋于院中[181]

이라고 記錄되어 있고, 校正에 參與한 企菴 李完은 退溪의 仲兄인 河의 長子이며.[182] 月川 趙穆은 退溪의 弟子로 알려지 있다[183] 이러한 緣由로 因하여 退溪가 돌아가시자 곧 位版을 伊山書院에 모시게 되었고, 또 ≪聖學十圖≫도 刊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退溪를 모신 伊山書院의 所在地인 榮川郡은 지금 榮州郡으로 그 郡名이 바뀌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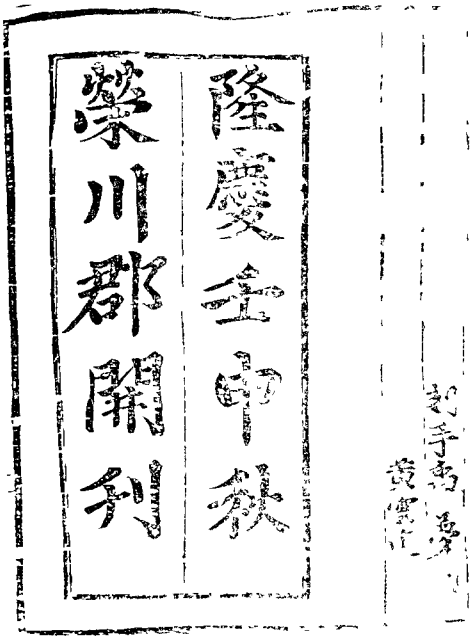
181) 影印本, 四 p 325
182) 上揭書, p 394.
183) 上揭書, p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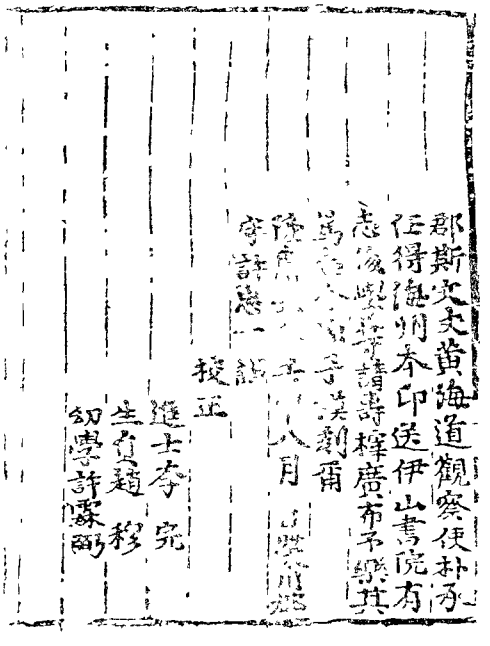
第17圖 榮刊川本 第一太極圖



第18圖 榮川刊本 太圖說



第20圖 榮川刊本 木記



第19圖 榮川刊 識文

이 榮川郡 伊山書院에서 刊行한 ≪聖學十圖≫는 前記 許忠남의 識文에 따르면 海州刊本을 模刻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나 海州刊本이 아니 알려지지 않아 서로 對照할 수 없어 자세한 論及는 할 수 없지만, 이보다 이기 刊行한 啓明大學藏本이나 咸興刊本과 많은 差異가 난다 우선 圖의 크기로 보아서는 小樣圖의 系統을 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第七圖와 第八圖의 차례가 나른 것을 보면 退溪가 改正한 新圖를 본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追記 : 本稿의 校正이 끝난 즘에 海州刊本이 나왔다)

(8) 壬辰戰前 校書館刊本

이 壬辰戰前 校書館 刊本은 宣祖9年(1576)刊 倣乙亥字體 木活字의 覆刻木인 ≪攷事撮要≫의 <書册市准>條에

聖學十圖 十二張[184]

으로 되어 있고, 또 宣祖18年(1585)에 刊行한 ≪攷事撮要≫에도 같은 글이 있었음으로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185] 이 책은 刊記가 分明한 책이 알려지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으나, 啓明大學藏本과 비슷하게 ≪聖學十圖≫의 圖·說 10張과 進箚 2張 모두 12張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만 이 책이 大樣圖를 刊行한 것 인지 혹은 小樣圖를 刊行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或은 宣祖2年(1569) 頒賜木의 板木이 그대로 남아 있어 記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9) 壬辰戰前 平壤刊本

이 平壤刊本은 宣祖18年(1585)刊 ≪攷事撮要≫의 平壤 條에 들어 있으므로 알려졌다. 宣祖9年(1576)의 覆刻本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平壤刊本의 ≪聖學十圖≫를 刊行한 年度는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宣祖9~18年間(1576~1585)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은 그 實物이 아직 發表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宣祖9年부터 18年 사이에 平安道觀察使로 있던 金繼輝·李俊民·李陽元·李遲·盧稙·兪泓 중의 한사람이 刊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可能性이 많은 사람은 鷺渚 李陽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왜냐하면 李陽元은 慶尙監司로 在任時에도 許曄을 通하여 退溪의 小樣圖 ≪聖學十圖≫를 刊行코자 한 일이 있으며,[187] 또 그는 退溪의 弟子中의 한 사

184) 魚叔權 編, 攷事撮要 (서울 : 河澈永, 1576, 木板木), 下, l 13B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本 以下 同書의 「高大本」으로 略한다.
185) 魚叔權, 影印本, 下, l 13B
186) 上揭書, 下, l. 47A
187) 影印本, 二 p 121

람이기 때문이다 [188] 이 平壤刊本에 대하여는 그 實物이 나타남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믿어진다.

(10) 壬辰戰前 南原刊本

이 刊本 역시 宣祖9年(1576)의 覆刻本 ≪攷事撮要≫에는 나타나지 않고, 宣祖 18年(1585)刊 ≪攷事撮要≫에 記錄되어 있으므로 알려진 것이다. [189] 이 南原刊本은 아직 發表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全羅監司로 있던 退溪의 弟子인 具思孟(宣祖12年 : 1579在任)이나 金命元·具鳳齡(모두 宣祖 16年 : 1583在任) 중의 한사람이 南原府에 命하여 刊行케 하였거나, 南原都護府使로 있던 어느 한 사람이 刊行하였을 可能性이 크다 이때 ≪心經附註≫도 함께 刊行한 것으로 보이니 ≪攷事撮要≫에 ≪聖學十圖≫와 함께 記錄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190] 또 함께 記錄되어 있는 ≪漂海錄≫이나 ≪草堂集≫도 同時에 刊行하였지 않았나 생각되나 안 수 없다.

(11) 壬辰戰前 鎭安刊本

이 刊本 역시 宣祖9年(1576)의 覆刻本 ≪攷事撮要≫에는 記錄되어 있지 않고, 宣祖18年(1585)刊 ≪攷事撮要≫부터 나타나는 책으로, [191] 이로 미루어 보아 宣祖9~18年 사이에 刊行된 것 같다. 그러나 그 印本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자세한 版本事項은 알 수 없다.

(12) 壬辰戰前 順天刊本

이 刊本도 前記 南原刊本이나 鎭安刊本과 마찬가지로 宣祖18年(1585)刊 ≪攷事撮要≫부터 記錄되어 있다. [192] 그 刊年은 역시 宣祖 9~18年(1576~1585)間으로 推定된다. 順天에서는 이 사이 ≪程氏遺書≫·≪延平答問≫ 등의 性理學書가 同時에 刊行된 일도 있다. ≪聖學十圖≫의 順天刊本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13) 宣祖年間刊? 木板本

이 刊本은 現在 奎章閣에 所藏하고 있는 木板本이다. [193] 線裝 方册인 이 책은 모두 1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刊記가 없어 그 刊行年代를 正確하게 알 수

188) 上揭書, 四 p 401
189) 魚叔權, 影印本, 下, *l* 40A.
190) 上揭書, 同面
191) 上揭書, 下, *l* 39B
192) 上揭書, 下, *l* 41B
193) 請求記號 奎3159

가 없다. 다만 「侍講院」이라는 印記가 있음을 보아 侍講院의 舊藏本이었음은 알 수가 있다.

이 ≪聖學十圖≫는 奎章閣 所藏 세가지 木板本中에서 가장 오랜 版本으로, 紙質을 보나 版式을 보나 壬辰前 刊本이 아닌가 생각되나 正確한 것은 알 수 없다

모두 20張으로 된 이 책은 크기가 세로 33.4㎝ 가로 21.8㎝ 이며, 卷首에 <進聖學十圖箚子> 4張이있으며 文末의 日字는 없다 第一圖 앞張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24.2×16.6㎝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上 單線 單絲, 下 單絲 有紋) 「聖學十圖」 張次「一」

과 같으며, (第21圖 參照) 第1張 뒷面은 11行 22字로(第20圖 參照) 그밖의 사항은 前述한 榮川刊本과 거의 같으며 圖說은 모두 20張이다. 그리고 圖의 모잉도 비슷하며 그 차례도 같고, 說의 行字數 配置등이 같은 것으로 보아 榮川刊本의 轉刻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刊本은 前記 河東·南原·鎭安·順天·平壤本 中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나 分明한 根據는 없다.

(14) 宣祖33年(1600)刊 ≪退溪先生文集≫ 收錄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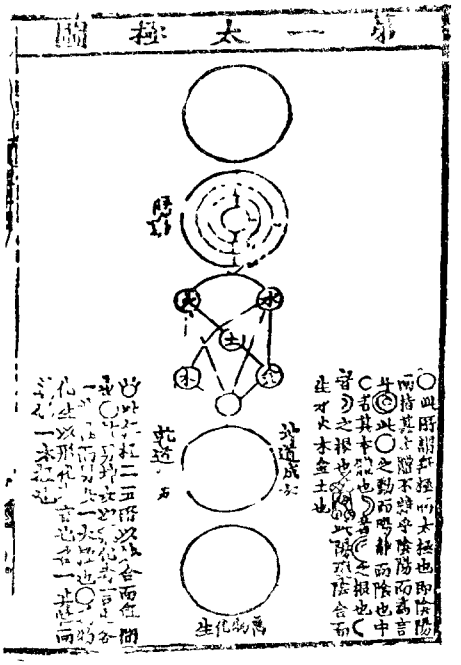
이 刊本은 宣祖33年庚子(1600) 5月 15日에 完刊 告成한[194] ≪退溪先生文集≫卷之七에 收錄되어 刊行한 것이다. ≪退溪先生文集≫은 宣祖33年에 初刊한 以後에도 여러번 重刊되었으므로 그때마다 ≪聖學十圖≫는 收錄된 그대로 刊行되었다. 이 ≪聖學十圖≫는 卷之七 第4張 뒷面부터 第35張 뒷面에 이르기까지 모두 32張이나 되며, <啓義>의 一部分으로서 <進聖學十圖箚幷圖>라는 題 아래에 들어 있다. 그 차례를 보면, 머리에 退溪의 箚子가 있으니 第4張 뒷面부터 第9張 앞面에 걸쳐 끝나고 있다 이 箚子의 끝에는 進上日字가 없다. 다음부터가 十圖이니, 우선 그 第一圖에 해당하는 ≪退溪先生文集≫卷之七 第10張 앞面 즉 <第一太極圖>가 있는 面의 版式을 보면 아래와 같다.

四周双邊. 半匡 : 20.5×16.3㎝. 版心 :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四升. 單線. 單絲) 「退溪先生文集之七」 張次「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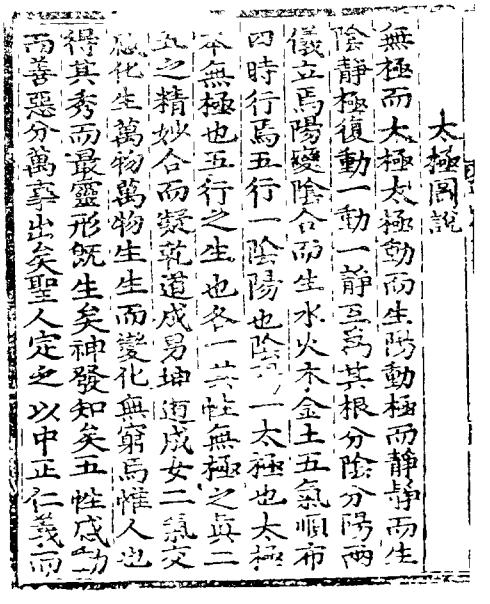
과 같다. (第23圖 參照) 그리고 그 뒷面은 圖說이니 그 版式은 앞面과 같으나 有界로서 10行 18字인 點이 다르다(第24圖 參照) 이와같은 形式으로된 十圖는

第一 太極圖 / 10A~12A
第二 西銘圖 / 12B~1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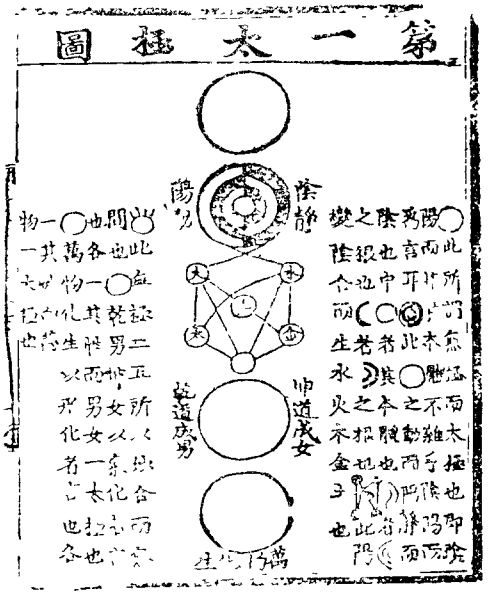
194) 影印本, 三 pp 611~612.



第21圖 奎章閣本 第一大極圖.



第24圖 退溪集本 太極圖說



第23圖 退溪集本 第一太極圖

第三 小學圖 l 15B～17B.
第四 大學圖 l 18A～20A
第五 白鹿洞規圖 l 20B～22A
第六 心統性情圖 l 22B～25A.
第七 仁說圖 l 25B～28A.
第八 心學圖 l 28B～30A
第九 敬齋箴圖 l 31A～33A.
第十 夙興夜寐箴圖 l 33B～35B

와 같은 차례로 되어 있다. 第二의 <西銘圖>는 上圖와 下圖로 나누어져 2面으로 되어 있으나 그밖의 每圖들은 各1面으로 첫머리에 두고 있으며 나음 面부터 說이 시작하고 있다. 說은 《退溪先生文集》 全體의 體裁에 따라 10行 18字로 되어 있다

이 《退溪先生文集》에 收錄되어 있는 《聖學十圖》는 第七圖와 第八圖의 차례가 <仁說圖> 다음에 <心學圖>를 둔 것으로 보아 退溪 新圖의 차례를 따른 것 같다 또 圖 속에 있는 說明의 位置를 보면, 《退溪先生文集》의 版型에 따라 不得하였겠지만 이 책보다 앞서 刊行한 다른 《聖學十圖》에 있는 說明의 位置와 전혀 다르며 도리혀 뒤에 刊行한 校書館 刊本과 비슷하나

(15) 光海間 校書館刊本?

이 책은 그 實物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光海5年(1613)에 訓練都監에서 木活字로 찍어낸 《攷事撮要》의 <書冊市准>에

聖學十圖 紙十二張[195]

이라고 印刷되어 있어서 알려진 것이다. 壬辰戰 以前에 校書館에 두었던 12張本의 板木이 戰時中에도 無事하게 남아 찍어낸 것이 아닐까하는 推測이 들 수도 있겠으나 이는 약산 無理가 아닐까 생각한다 壬辰戰時에는 校書館의 器物이 모두 蕩盡되었기에[196] 不得이 訓練都監에서 木活字를 만들어 책을 찍은 일이 있는 것[197]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이 12張本은 光海時에 와서 새로이 雕刻하여 찍어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더구나 實錄을 보면

吳億齡□□聖學十圖 作屛或作帖 以備省覽 聖學十圖 作屛帖事.[198]

195) 魚叔權 編, 攷事撮要 (訓練都監, 1613, 木活字本), l 38B. 奎章閣藏. 請求記號 1883 및 661 <奎章閣叢書>로 나온 影印本도 있다
196) 沈守慶, "遣閑雜錄", 大東野乘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8, 影印本), 三, p 325.
197) 韓愈, 朱文公校昌黎先生集(訓練都監, 1610, 木活字本), 卷末에 있는 李恒福의 跋文에 「都監印出」이라 있어 알 수 있다.
198) 實錄, 26 p 578上 光海君2年庚戌閏3月初4日己酉

라는 記事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에 宣祖時의 刊本으로 圖屛를 만들게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같은 ≪實錄≫에

> 政院啓曰 聖學十圖 當造屛 頃於辛亥年 吳翊·趙希逸·李禹卽所書三丈入啓 未久材料已備 而不得造作 此三人所書中 以某人所書用之事命下 然後當爲造作 敢稟 傳曰 命吳翊·趙希逸更書以入 盖先是有請以十圖爲屛者 旣命書入 而王不省遺失故也[199]

라 한 것을 보면, 새로이 써서 올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實錄≫記事의 날자가 光海君 2年(1610)이고, 뒤의 記事의 날자가 光海君5年(1613) 2月이고 보면 吳翊이나 趙希逸의 글씨로 다시 ≪聖學十圖≫를 써올렸던 것은 틀림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때 올린 두사람分의 ≪聖學十圖≫를 모두 作屛하였는가는 ≪實錄≫에 記錄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그 中 한사람分은 作屛하고 남은 한사람分은 校書館에 나려 板刻하였을 可能性도 있다. 그리하여 이때쯤 刻刊한 板木의 記錄이 ≪攷事撮要≫에 收錄되었으며 또 같은 해(1613) 9月에 ≪攷事撮要≫를 頒賜함에 따라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때의 刊記가 分明한 ≪聖學十圖≫가 나타나야만 밝혀질 것이다

(16) 日本 承應4年(1665)刊 木板本

이 책은 우리나라 孝宗6年(1655)에 해당하는 日本의 承應4年 3月에 刊行된 책이다. 이 책은 岩波書店에서 發行한 ≪國書總目錄≫에도 收錄되지 아니한 책으로 ≪朝鮮典籍誌≫[200]에 의하면 國立中央圖書館藏本과 日本의 成簣堂文庫藏本[201]이 알려져 있다.

國立中央圖書館 藏本[202]은 모두 1册으로 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세로가 27.5*cm* 가로가 19 3*cm*이다 이 책의 表紙는 藍色紙로서, 木板으로 白紙에 찍은 題簽이 붙어있다. 이 題簽의 簽題는 머리에 「李退溪」라는 小字로 된 글씨가 있고 그 아래에 「聖學十圖並封事」라는 大字의 題가 있다. (但 「並」은 小字이다). 한가지 자미있는 것은 다른 日本本이 四針眼綴인 것과는 달리 五針眼綴로 되어 있다

이 책의 卷首에는 <進聖學十圖箚子> 6張이 있다. 이 箚子 第1張 앞面의 版式을 보면,

> 四周双邊 半匡 21 4×14 7*cm*. 無界 9行18字. 片假名 返點 및 送訓表示有. 版心 : 上下黑口、上下 內向黑魚尾(双線. 單狹) 「聖學十圖箚子」 單線. 張次「一」

199) 實錄, 32, p 152下左 光海君5年癸丑 2月癸巳
200) 註172 同書
201) 德富猪一郎, 修史餘課 (東京 · 民友社, 昭和6(1931)), p 372
202) 請求記號 古朝 17—143

과 같다. 이 책에는 日本人을 위한 返點과 送讀表示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版本의 文首에는「判中樞府事(臣)李滉謹再拜 上言 」이라고 있는 것과는 달리「(臣)云云 」이라고 시작한 點이 다르다. 그리고 第1~5張의 版心題가「聖學十圖箚子」라 되어 있는 反面 第6張의 版心題의 끝字는 "子"가 "字"로 되어 있어 이 日本刊本의 底本은 原來부터 版心題가 "字"字로 끝난 책이 아니었나를 짐작케 한다.

이 <進聖學十圖箚子> 6張이 끝나고, 새로이 十圖가 시작된다 이 十圖에는 卷首題가 없으며 版心題만「聖學圖」라고 되어 있나 圖는 모두 30張으로 되어 있으며 每圖는 各3張으로 이루어져 있다 每圖의 첫머리에는 圖가 各各 1面씩 있으며, 그 뒷面부터 說이 始作하고 있다. 우선 <第一大極圖>가 있는 第1張 앞面의 版式을 보면 箚子의 版式과는 달리 半匡의 길이가 21 2*cm* 폭이 14 9*cm*로 차이가 난다 (第25圖 參照) 圖의 뒷面으로 부터 시작하는 說의 版式을 보면, 日本 木板本에서 比較的 많은 無界이며, 우리나라 版의 ≪聖學十圖≫에서 볼 수 있는 句讀點이 없는 代身에 日本 特有의 返讀點과 送假名가 눈에 뜨인다 (第26圖 參照) 이러한 圖說이 끝나면, 說의 끝이 한張 가득히 차지 않았을 때에는 그 뒷面은 白面으로 비워두면서 張을 끝 맺고 있다

이 日本版에서 特異한 點을 한가지 더 찾자면 每圖題의 位置가 서로 다른 點이다 第3·5·6·8·9·10圖의 圖題는 우리나라 壬辰戰前 刊本과 같은 자리에 있으나, 第2圖의 圖題는 圖面의 中으로 줄여서 왼쪽으로 몰려있으며, 또 第1·4·7圖의 圖題는 邊欄없이 上部右側에 세로(縱)로 붙인 點이다. 이 刊本의 底本이 우리나라에서 刊行한 어떤 版本이었든가는 알 수 없으나 小樣圖로서 舊圖가 아닌가 생각한다. 小樣圖라는 것은 第1·4·7圖가 底本의 原圖 그대로를 轉刻한 경우로서 짐작한 것이나 底本의 刊記가 없어 斷言하기는 이르다 다만 舊圖라는 것은 第七圖와 第八圖의 자리가 <心學圖>와 <仁說圖>로 되어있는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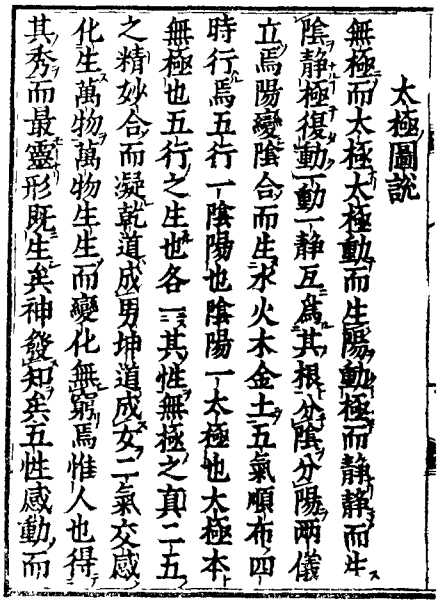
이와 같은 ≪聖學十圖≫ 30張이 끝나 다음, 이 책에는 退溪의 ≪戊辰封事≫ 24張이 더 合綴되어있다 이렇게 모두 60張되는 이 책의 가장 마지막 張인 ≪戊辰封事≫ 第24張의 뒷面에는

承應四季三月上旬
西村五郎兵衛開板

이라는 이 책의 日本 刊記가 있다 (第27圖 參照) 이에 따르면 1655年 3月 上旬에 西村五郎兵衛라는 사람이 木板으로 開刊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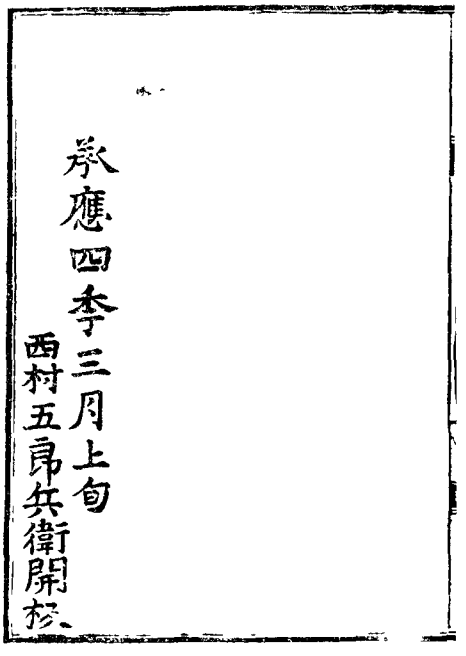
(17) 日本刊 別版 木板本

第25圖 日本承應本 第一太極圖


太極圖說

無極而太極太極動而生陽動極而靜靜而生陰靜極復動一動一靜互爲其根分陰分陽兩儀立焉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五氣順布四時行焉五行一陰陽也陰陽一太極也太極本無極也五行之生也各一其性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乾道成男坤道成女二氣交感化生萬物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惟人也得其秀而最靈形既生矣神發知矣五性感動而

第26圖 日本承應本 太極圖說


承應四季三月上旬
西村五郎兵衛開板

第27圖 日本承應本刊記

이 日本刊本은 阿部吉雄의 藏本이 ≪(日本刻版)李退溪全集≫(下)에 影印되므로서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나[203] 刊記가 없는 관계로 그 正確한 刊行年度는 알 수 없으나, 前記 承應4年(1655)刊本의 刊行年度를 약간 前後한 時期에 刊行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阿部博士의 解題와[204] 影印한 書影을 國立中央圖書館藏本과 比較하여 보면 述假名 등의 位置가 다른 것으로 보아 새로이 版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대하여는 影印本을 보면 알 것이므로 省略한다(第28~29圖參照).

(18) 肅宗即位年(1674)頃 校書館刊本?

이 刊本도 正確한 ≪實錄≫上의 記錄이 있거나 實物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다만 顯宗15年 즉 肅宗即位年(1674)頃에 戊申字로 印出한 ≪攷事撮要≫의 <書册印紙數>에

> 聖學十圖 紙十二張[205]

이라고 記錄되어 있는데서 짐작한 것이다. 이 ≪攷事撮要≫는 肅宗元年(1675) 1月에 頒賜한 册이 있음을[206] 보아, 肅宗即位年(1674) 9月 以後에 印出하였을 可能性이 多分히 있는 책이다.

≪聖學十圖≫의 性格으로 보아 肅宗이 即位하자 새로이 찍었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光海時(?)의 板木이 그대로 남아 있어 ≪攷事撮要≫에 그대로 轉記될 수도 있으므로, 이 때의 刊本이 있었다고 斷言하기는 이르다. 後考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19) 肅宗7年(1681) 校書館刊本?

이 책은 前間恭作가 ≪古鮮册譜≫에서 英祖20年(1744)刊 ≪聖學十圖≫를 解題하면서

> 이 책, 또 谷木에 吳道一의 刊板跋을 붙였음. 肅宗7年辛酉(康熙二十年) 吳道一이 刊進한 舊刻本을 重刻한 것으로 알려짐.[207] (筆者譯)

이라 한데서 알려졌다. 이때 前間翁은 그 刊本을 提示하지는 못하였다. 筆者 역시 이때의 刊本을 實査하지 못하였다. 前間翁이 보았다는 吳道一의 跋文을 훑어 보아도 刊行에 關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으니 前間翁이 어떤 根據에서 刊行하였다고 말하였는지 알 수 없다. 肅宗7年辛酉(1681) 8月의 ≪實錄≫ 記事를 보면,

---

203) 註15同書, 下, pp 248~277
204) 上揭書, 下, 卷首 "下卷解題" '聖學十圖' 條
205) 魚友權 編, 攷事撮要 (서울 校書館, 1674頃, 活字本(戊甲字), *l* 13B 奎章閣藏. 請求記號 奎1117 및 1132
206) 註90 同書, p 85
207) 前間恭作 編, 前揭書, 第二册, p 1054

御畫講 侍敎官吳道一 請以先正臣李滉所撰 聖學十圖及投進所上箚子 編爲一書 別爲進講 上從之[208]

라는 記錄이 있고, 같은 해(1681) 10月의 記事에도

御書講 侍講官吳道一 請頒校(司僕李)翔 講論聖學十圖 上許之 .[209]

라는 記錄이 있으며, 또 英祖20年(1744)에 頒賜한 ≪聖學十圖≫의 末尾에 있는 吳道一이 쓴 <〔聖學十圖跋〕>이라는 글에 보면

御去筵講劇經訓 而因筵臣洪萬容所陳 以先正臣李滉所撰聖學十圖 命弘文館 作爲御屛以進 臣道一 又於筵中 請以滉所撰圖若說 並其所進箚文 書諸一册子以進

이라고 前述한 ≪實錄≫의 記事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은 다음 ≪聖學十圖≫의 <進箚子>를 要約한 內容의 말과, 또 ≪聖學十圖≫의 每圖를 解說한듯한 말을 쓰고, 임금이 朝夕으로 보고 參考할 것을 전한 글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故今於投進册子之日 敢攄諛寡之聞 以跋諸尾 ··

라 하고 「辛酉十月 日」이라는 日字와 吳道一의 官銜 姓名이 있다. 이러한 記錄을 中心으로 생각 할 때에 吳道一은 筵講을 위하여 ≪聖學十圖≫와 <進箚子>를 編書하여 올린데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吳道一이 肅宗 7年(1681) 10月에 임금에게 講하기를 請하였고, 임금이 이를 승낙하자 올리게된 날자 역시 跋文에 적힌 같은 10月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와 같은 經緯로 보아 筆者는 肅宗7年 (1681) 校書館 刊行本의 存在를 否認하고저 생각하나,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跋文이 붙으면 刊行된 例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前間翁의 意見에 따라 그刊本의 存在 可能性 만을 비치는데 끄친다.

(20) 肅宗11年(1685) ≪三先生遺書≫ 合刊本

이 책은 朴世采가 編纂한 ≪三先生遺書≫라는 개속에 合刊한 것을 말한다. ≪三先生遺書≫는 ≪鏤板考≫에 따르면,

安邊府藏印紙二牒[210]

이라 한 것으로 보아 安邊府에서 刊行한 것 같다. 일찌기 明齋 尹拯이 權綵에게 答한 書簡을 보면

208) 實錄, 38, p 545上左 肅宗7年辛酉 8月乙酉
209) 上揭書, p 559下左 同年10月丁未.
210) 徐有榘 編, 前揭書, p 87

·今安邑有刻本 名三先生遺書者 卽退溪先生聖學十圖及 此二書合刊者也 安邊之去仙鄕不遠 若印取而藏之 .[211]

리 하였는 바, 그 날자가 丙子 즉 肅宗22年(1696)의 4月 26日이므로 ≪三先生遺書≫가 安邊에서 刊行된 것은 이보다 앞선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三先生遺書≫는 그 存本이 比較的 많아, ≪朝鮮典籍誌≫[212]에 의하면 奎章閣·國立中央圖書館을 비롯하여 十餘個處에 所藏하고 있다 그中에서 筆者가 實査한 것은 國立中央圖書館藏本이다.[213] 이에 따르면 線藏 方册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3卷 1册으로, 그 크기는 세로가 28 3cm 가로가 16.3cm 이다. 그리고 이 册 表紙의 裏接紙로는 木板本으로 찍은 「通鑑四十」을 썼다.

이 책 卷首에는 <三先生遺書目錄> 3張이 있고, 이어 本文이 始作한다. 本文의 卷之一은 여기서 詳論하는 <聖學十圖> 이고, 卷之二는 <爲學之方>으로 모두 22張, 卷之三은 <擊蒙要訣>로 모두 23張으로 되어 있다. 이어 張次가 「二十四」로 되어 있는 <書退牛栗三先生遺書後>가 앞뒷面에 걸쳐 찍혀 있다 그 중요한 줄거리를 추려보면,

安邑沈使君壽亮龍卿 間謂世采 願得一書爲帙簡 而收功博者登板 以便後人 世采乃敢 遂而近世退溪李先生聖學 合爲一册者論列 敬應曰諾無何 工告訖 書來俾題其後 歲在旃蒙赤奮若涼月乙丑後學潘南朴世采謹識

라고 되어 있다 이 識文을 쓴 날자가 乙丑 즉 肅宗11年(1685)로 되어 있음을 보아, 이 책은 安邊府使인 沈壽亮의 要求에 따라 朴世采가 編纂한 것을 安邊에서 肅宗11年(1685)에 刊行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三先生遺書≫에 들어 있는 ≪聖學十圖≫는 卷之一의 모두 30張이다 이 卷之一 第1張 앞面의 版式을 보면,

四周双邊. 半匡 : 20 4×16 5cm 有界. 10行 18字 版心·「三先生遺書」上下內向花紋魚尾(四瓣單線單絲)「聖學十圖」張次「一」下白口

와 같다. 그리고 이 卷之一의 內容을 보면, 第1張 앞面에 <進聖學十圖箚子>로 시작하여 第5張으로 끝나고 있다 이 箚子의 文末에는 날자가 없다. 第1圖부터 第10圖까지의 張次를 보면 아래와 같다.

第一 太極圖 *l* 6A~8A (第30圖參照)
第二 西銘圖 *l* 8B~11A

211) 尹拯, 明齋先生遺稿 (芸閣, 1732, 活字本), 卷之二十三 *l* 26.
212) 註172 同書.
213) 請求記號 古朝 17—172

第三 小學圖 *l*. 11B～13B
第四 大學圖 *l*. 14A～16A
第五 白鹿洞規圖 *l* 16B～18A
第六 心統性情圖 *l* 18B～21A
第七 仁說圖 *l* 21B～24A
第八 心學圖 *l* 24B～26B
第九 敬箴 齋圖 *l* 27A～29A
第十 夙興夜寐箴圖 *l* 29B～30B

위와 같은 차례를 보면 이 刊本은 退溪 新圖의 차례를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圖를 보면 小樣圖 중에서도 더욱 작은 그림이 된 것 같다. 이 ≪三先生遺書≫는 肅宗45年己亥(1719)에 쓰인 宋秉珣의 <追跋文>이 붙은 安邊追刊本도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 [214] 이 책은 <追跋文>만 넛붙인 以外에는 이 刊本과 같으므로 더 言及치 않는다

(21) 肅宗34年(1708)頃 文川刊本

이 刊本은 ≪海東地誌≫의 文川 條에서

聖學十圖 十板 在工房庫上[215]

이라 한데서 알게 되었으나 그 刊行年度를 알 수 없었다가, ≪册板置簿册≫ 文川 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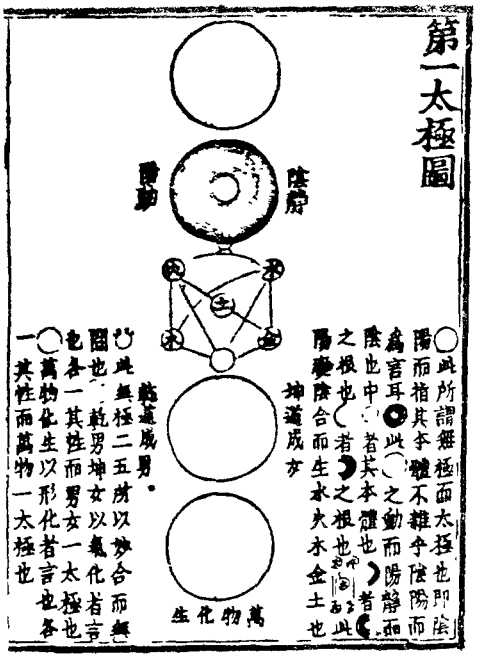
性學十圖 白紙十丈[216]

이라 記錄되어 있으므로서 어느 程度 짐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薪菴文庫本인 ≪册板置簿册≫은 그 책에 收錄한 書名의 分析에 따르면 肅宗34年(1708)頃에 編纂한 책이다. 이러한 推定이 맞다면 肅宗30年을 前後한 期間에 文川郡에서 刊行한 ≪聖學十圖≫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때의 印本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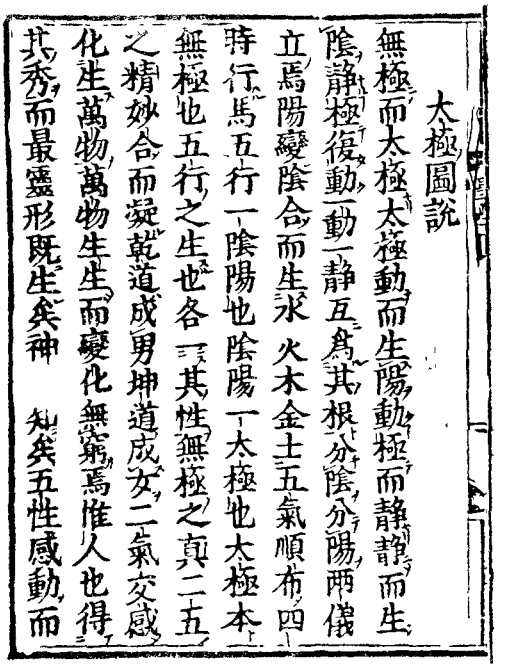
(22) 英祖20年(1744) 內賜 本板本

이 內賜本은 ≪朝鮮典籍誌≫에 따르면 奎章閣·藏書閣·國立中央圖書館·서울大學校圖書館·陶山書院·日本의 東洋文庫 그밖에도 國內外에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奎章閣에는 여러 번의 複本을 所藏하고 있다. 筆者가 實査한 것은 위 奎章閣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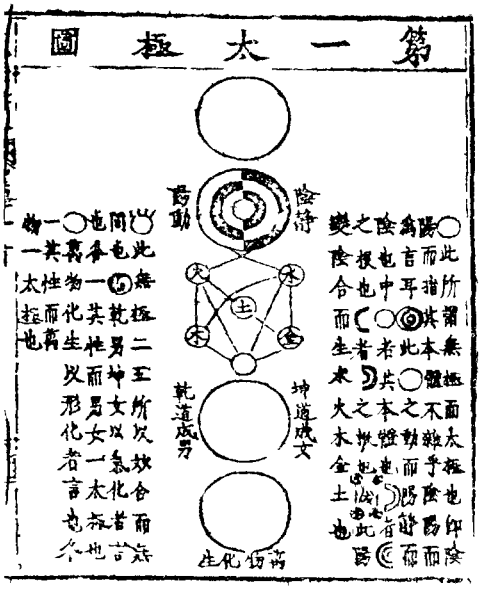
214) 請求記號 古朝 17—12
215) 海東地誌 (寫本), *l* 165 . 高麗大學校 六堂文庫藏 請求記號 六古B10—A38
216) 册板置簿册 (1708頃, 寫本)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薪菴文庫本. 請求記號 신암B15—A7. 書名의 "性"은 "聖"의 誤字 이다.



第28圖 日本別版本 第一大極圖



第29圖 日本別版本 大極圖說



第30圖 三先生遺書本 第一大極圖

• 國立中央圖書館本 • 서울大本 그리고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本이다. 특히 六堂文庫에 의하여 ≪聖學十圖≫의 全十圖를 보이면 第1~10圖와 같다.

이 內賜本은 例外없이 壯紙에 印刷하였으며 특히 用紙의 鮮白과 더불어 楷正한 字體와 鮮明한 圖 등으로 因하여서인지, 이 版本을 ≪聖學十圖≫의 代表的 版本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은 線裝 方册으로 모두 1册이며, 그 크기는 세로가 34 3cm 가로가 22 5cm로서 啓明大藏本보다는 작으나 다른 版本에 비하여서 약간 큰 모양을 하고 있다. 서울大本에는[217]

乾隆九年三月二十四日
內賜綾昌君楨
聖學十圖一件
命除謝
恩
行都承旨臣李(手決)

과 같은 內賜記가 表紙에 붙은 面紙 뒷面에 쓰여 있다 (第31圖參照) 奎章閣本에는 侍講院에 內賜한 책이 있으며,[218] 日本 東洋文庫本에는 金尙翼에게 內賜한 책이 있음이 알려 지고 있다.[219] 이러한 책과 陶山書院藏本에 쓰인 頒賜日字 들은 모두 奎章閣本과 같은 날자이다. 이 內賜記로 미루어 보면, 英祖20年(1744) 3月24日에 頒賜한 것을 알 수 있다. 內賜本은 ≪韓國書誌年表≫의 例를 보면 刊行하여 進上한지 몇일 안으로 頒賜한 일이 많은 것을 보아, 이 ≪聖學十圖≫도 그 해(1744) 3月中에 刊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따라 생각나는 것은 같은 해 3月 5日에 英祖가 ≪古鏡重磨方≫의 篇題를 親製하여 芸館으로 하여금 刊布케한 일이다[220] 이로 미루어 보면 이때 ≪古鏡重磨方≫도 함께 刊行한 것으로 보인다 이≪聖學十圖≫를 芸閣 즉 校書館에서 刊行한 것이 틀림 없는 것은 後述하는 嶺營刊本의 卷首에 있는 <英宗御製·序> 속에

聖學十圖 先正所進 頃命芸閣重印 以進

이라 있는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英祖20年 內賜本에는 다른 內賜本의 例와 마찬가지로 方形朱印의 「宣賜之記」라는 印記가 ≪進聖學十圖箚≫, 즉 內賜記가 있는 다음 面에 찍혀 있다 이 <進聖學十圖箚幷圖>는 卷首에 있으며 모두 7張으로 되어 있다 그 版式을 보면

217) 請求記號 古 1360—2
218) 請求記號 奎2331
219) 前間恭作 編, 前揭書, 第二册, p 1054
220) 同 90 同書 p 102

四周双邊. 半匡 23.7×16 5cm 有界 8行 16字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太六瓣單線. 單弧)「聖學十圖箚」張次「一」

과 같다. (第32圖參照) 이 箚子가 끝난데 이어 聖學十圖의 圖說이 始作하니, 圖 第1面의 版式은 箚子의 版式과 비슷하나 다만 半匡이 23 8×16 3cm로 약간 좁아졌으며 版心題가 「聖學十圖」라고 되어 있는 點이 다르다. (第1圖參照) 그리고 圖說의 張次도 새로이 「一」로 시작하고 있다. 參考로 그 차례를 보면

第1～4張이 第一 太極圖 (第33圖參照)
第5～8張이 第二 西銘圖
第9～12張이 第三 小學圖
第13～16張이 第四 大學圖
第17～19張이 第五 白鹿洞規圖
第20～23張이 第六 心統性情圖
第24～27張이 第七 仁說圖
第28～30張이 第八 心學圖
第31～33張이 第九 敬齋箴圖
第34～36張이 第十 夙興夜寐箴圖

로 모두 36張이다. 圖는 每圖說의 첫面에 各1面씩 차지하고 있으나 다만 第二圖는 1張 즉 2面에 걸쳐 <上·下圖>로 나누어져 있다. 說은 各圖가 끝난 다음 面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그 版式은 箚子의 版式과 같다. 이상과 같은 차례로 보아, 이 英祖20年의 內賜本은 退溪 新圖의 차례를 따른 것 같으며, 그림의 크기로 보아 小樣圖의 體裁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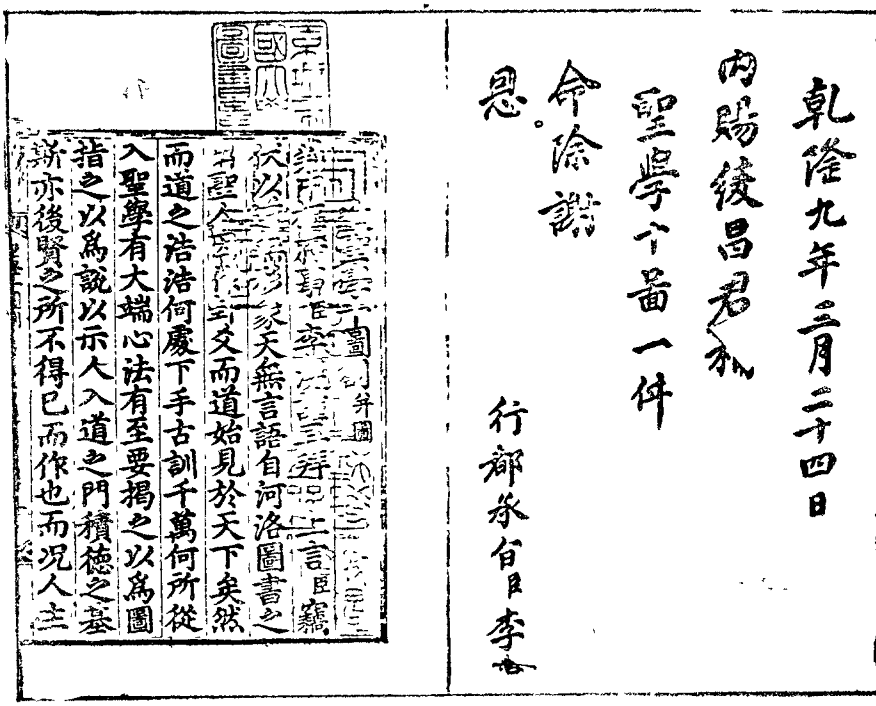
이러한 圖說 36張이 끝난데 이어 版心題가 「聖學十圖跋」로 되어 있는 吳道一의 跋文 4張이 있다. 이 跋文의 張次는 새로「一」로 시작하고 있다 그 內容의 重要한 줄거리는 前述하였으므로 省略하거니와 그 文末을 보면

辛酉十月 日 通訓大夫 行弘文館校理 知製敎 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成學敎授 南學敎授 臣吳道一 拜手稽首謹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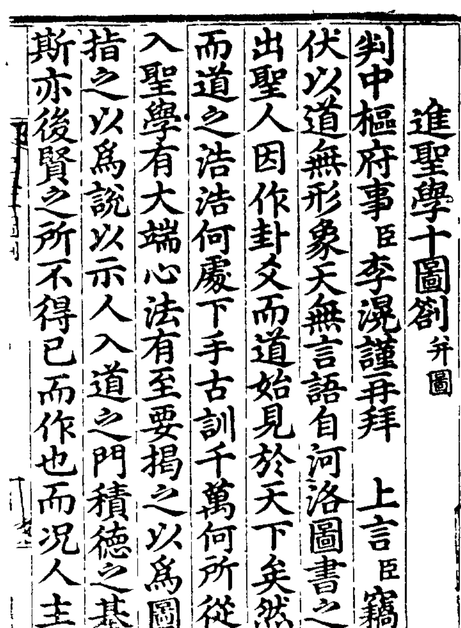
로 되어 있어 吳道一의 當時 職銜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吳道一의 跋文이 있음을 보아, 英祖20年 內賜本의 板刻 底本은 吳道一 編纂 進上本이거나 혹은 이를 刊行한 一本이 있었을 可能性을 비치고 있다

(23) 英祖26年(1750)頃 龍潭刊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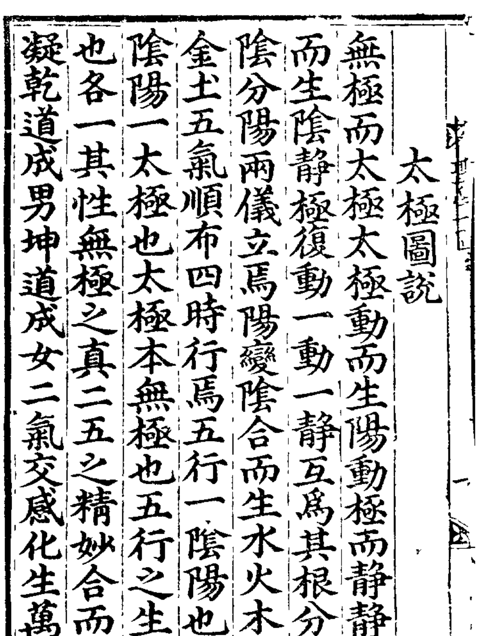
이 刊本은 ≪韓國册板目錄總覽≫의 ≪聖學十圖≫에서 龍潭에 所藏하고 있는 册



第31圖 內賜本. 內賜記


進聖學十圖箚 幷圖
判中樞府事臣李滉謹拜 上言臣竊
伏以道無形象天無言語自河洛圖書之
出聖人因作卦爻而道始見於天下矣然
而道之浩浩何處下手古訓千萬何所從
入聖學有大端心法有至要揭之以爲圖
指之以爲說以示人入道之門積德之基
斯亦後賢之所不得已而作也而況人主

第32圖 內賜本. 進聖學十圖箚


太極圖說
無極而太極太極動而生陽動極而靜靜
而生陰靜極復動一動一靜互爲其根分
陰分陽兩儀立焉陽變陰合而生水火木
金土五氣順布四時行焉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太極本無極也五行之生
也各一其性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
凝乾道成男坤道成女二氣交感化生萬

第33圖 內賜本 大極圖說

板 속에

紙 五丈 (五車書錄)
白紙 五丈 (完營册板目錄)
五丈 (諸道册板錄)[221]

등으로 되어 있는 바에 따라 알게된 것이다. 이 중 ≪完營册板目錄≫의 成立이 英祖 26年(1750)頃으 알려져 있으므로, 龍潭刊 ≪聖學十圖≫의 刊年은 이보다도 앞선 것으로 짐작된다. 불행이도 이 龍潭刊本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體裁 등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5張이라는 張數로 보아 圖만 10面 즉 5張으로 刊行하였거나, 혹은 上段은 圖 下段은 說과 같은 形式으로 刊行하지 않았나 짐작하나 實物을 보지 못하여 알 수 없다. 龍潭에서는 前述한 5張本 以外에도 11張本의 板木도 있었던 것 같으니,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三南册板》이라는 册板目錄에 의하면 龍潭條에

聖學十圖 十一丈[222]

이라고 있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책 역시 아직 發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龍潭에서는 1張으로만 된 ≪太極圖≫도 刊行된 것 같으니, ≪韓國册板目錄總覽≫에 보면 龍潭條에

太極圖
壯紙 一丈 圈失 (完營册板目錄 *l* 22B)
一丈 昔有今無秋 (五車書錄)[223]

이라 있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 ≪太極圖≫가 ≪聖學十圖≫의 第一圖에 해당하는<太極圖>인지는 역시 實物이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

(24) 英祖 31年(1755)頃 嶺營刊 木板本.

이 刊本은 英祖31年12月14日 ≪實錄≫ 記事에

校理李世澤 上疏 進先正文純公李滉所纂 聖學道學淵源 上褒答之 親製序文序 聖學十圖 命嶺南道臣刊進 遣儒臣致祭陶山書院 賜世澤貂帽 世澤滉之後 陶山滉之祖豆所也[224]

로 있어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이 ≪實錄≫의 記事에 따르면 退溪의 後孫인 李世澤[225]이가 退溪의 著書인 ≪聖學道學淵源≫을 바쳤으므로 親히 ≪聖學十圖≫의 序文을

221) 尹炳泰 編, 韓國册板目錄總覽 (未刊行原稿)
222) 三南册板 (寫本), *l* 5B 國立中央圖書館藏本. 請求記號 古0267—3.
223) 註221 同書.
224) 實錄, 43, p 604下左. 英祖31年乙亥12月癸丑.
225) 影印本, 三 p 556에 따르면 그는 退溪 七代孫이다

짓고 慶尙道觀察使에게 그 刊行을 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慶尙監營에서는 곧 刊行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으니, ≪韓國册板目錄總覽≫에 보면

大邱

嶺南觀察營藏 印紙二牒五張 (鏤板考)
慶尙營上 一卷 白紙二束五張 (嶠南册錄)
嶺營上 一卷 失 (書册目錄)
在册工房 五張 (嶺南册板)
白紙 二束 (嶠南册錄)[226]

등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 慶尙監營의 刊本은 그 存本이 비교적 적어, 奎章閣 所藏의 一本만이 알려져 있다[227] (第34圖參照) 이 奎章閣本에 따르면 線裝 方册으로 모두 2卷1册이며 總張數는 77張이다. 그 크기는 세로가 34 6cm이고 가로는 22 2cm이다 卷首에는 英祖가 짓고 李喆輔가 奉敎書한 <御製聖學十圖聖賢道學淵源序>가 있다. 그 重要한 줄거리를 보면

·聖學十圖 先正所進 頃命芸閣重印以進 ‖意其孫今爲王署投進一册 乃其祖撰道學淵源 次第精詳 二百餘年藏于陶山 何幸今日進獻九重 特命嶺營同爲刊印 欽歎誠悃 若親受焉 親製其上 歲旃蒙大獻淵 · 李喆輔奉敎書[228]

와 같으며 대체로 前述한 ≪實錄≫에 記錄된 사실과 비슷한 말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英祖御製의 序文에 이어 <進聖學十圖箚(幷圖)>라는 箚子 7張이 있다. 이 箚子의 版式을 보면

四圍双邊 半匡 : 22 9×16 4cm 有界 8行 16字 版心 . 上下白口. 上下 內向花紋魚尾 (太六升單線 單條)「聖學十圖箚」張次「一」

과 같다. 이 箚子가 끝난 다음 곧 이어 ≪聖學十圖≫의 圖說 36張이 있다 이 圖說의 차례나 張次의 배김을 보면 英祖20年(1744) 內賜本과 꼭 같다. 다만 圖와 說의 字體는 英祖 20年7(1681) 內賜本을 본딴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다르다.

이와 같은 本文이 끝난데 이어 肅宗7年(1744)에 쓴 前述한 吳道一의 跋文 4張이 있다. 이 跋文의 張次도 새로이 시작한 것이다. 跋文이 끝난데 이어 새로운 張次로 시작하는 退溪의 ≪聖賢道學淵源≫ 모두 28張이 合綴되어 있다. 이 책의 卷末에는 刊記가 없다. 이렇게 모두 77張으로 끝난 이 책 속의 ≪聖學十圖≫만의 底本을 짐작한다면 이

226) 註221 同書.
227) 請求記號 奎2328.
228) 增補文獻備考, 前揭書, 下 pp 880에도 같은 글이 있으나 "芸閣"을 "藝閣"으로 誤植하였다

는 英祖20年(1744)에 內賜한 木版本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理由로는 圖說의 圖나 說의 字體가 비슷하며, 箚子・圖說・跋文의 차례가 꼭 같고, 吳道一이 지은 跋文의 內容이 꼭 같은 까닭이다.

(25) 正祖7年(1783)頃 尙州刊本

이 刊本은 ≪韓國册板目錄總覽≫의 尙州 條에

聖學十圖
　白紙 五張印(嶠南册錄)
性學十圖
　五張 (慶尙道册板)
　白紙 五張 (書册目錄)
　容入紙 五張 刓缺 (各道册板目錄)
　○ (尙州牧邑誌)[229]

라 있는데서 尙州에서 刊行한 ≪聖學十圖≫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引用한 文獻中 ≪嶠南册錄≫의 編纂이 正祖 7年(1783)頃으로 推定되므로 ≪聖學十圖≫를 尙州에서 刊行한 것은 이보다 以前일 것으로 믿어진다. 또 引用文獻中 憲宗6年(1840)頃에 編纂한 것으로 믿어지는 ≪各道册板目錄≫에서는 刓缺하였다고 하였으므로 ≪嶠南册錄≫에 收錄한 60年 뒤에는 磨滅이 甚하고 缺張도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刊本은 그 實存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그 張數가 5張인 것으로 보아 北潭刊本과 비슷한 體裁가 아니었나 짐작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26) 正祖23年(1799) 內閣刊本 ?

正祖23年에 內閣에서 ≪聖學十圖≫를 정말 刊行하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實錄≫에 보면

> 先生臣李滉 平生精手以事君者 即聖學十圖是 ·· 今見圖之不講久矣 豈不慨然乎 臣謂 十圖舊板 久已刓 畧宜令內閣重刊 大小二本 粧爲御屛 小本印頒諸臣 以爲我聖祖相傳之心法 批曰 諸條好矣 當留意 附陳聖學十圖 令內閣稟處[230]

라고 쓴 記事가 있음을 보아, 이 記事의 날자인 正祖23年(1799) 12月 29日에 內閣 즉 奎章閣에 命하여 ≪聖學十圖≫의 大小樣圖 2種을 刊行하려는 論議가 있었던것 같다. 이렇게 論議가 되었던 ≪聖學十圖≫의 刊行을 그 後 內閣에서 어떻게 處理하였는지, 또

229) 註221 同書
230) 實錄, 47, p 226 正祖23年己未 12月壬子

는 正祖의 昇遐로 因하여 아주 그만 두었는지는 ≪實錄≫에 繼續하는 記事가 없어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時期 쯤해서 內閣에서 刊行하였다는 有刊記印本 조차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그 刊行을 斷定지을 수 있는 資料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27) 民國21年(1932) 中國 漢口刊 鉛印本

이 책은 서울特別市立 鍾路圖書館에서 그 ≪장서목록≫에 解題가 실림으로서 알려진 책이다 [231] 이밖에도 ≪朝鮮典籍誌≫에 따르면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에도 1册을 所藏하고 있다.[232] 이 두가지 記錄에 따르면 鉛印本 1册으로 모두 33張이며 크기는 세로가 26*cm* 가로가 18*cm* 인 것 같다 刊行한 곳은 中國 漢口의 大同協會이며 圖의 半匡은 21.5×14*cm*이고 說의 行字數는 12行 28字 이다.

이 ≪聖學十圖≫는 그 차례가 <太極圖·西銘圖·小學圖·大學圖·白鹿洞規圖·心統性情圖·仁說圖·心學圖·敬齋箴圖·夙興夜寐箴圖>의 順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退溪 新圖의 차례를 따른 것 같다 이 册은 寧齋 李康浩(1860~)가 編纂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고서목록≫에 따르면 「忠南 連山人으로 純宗年間 學部 敎員을 歷任하였고 日帝下에 있어서는 排日의 感情이 劇烈하여 中國에 歸化하여 餘生을 中國에서 마치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3]

(28) 1937年 大聖文學院刊 石印本

이 책은 國立中央圖書館 藏本[234]이 있어 實査할 수 있었다. 石版으로 印刷한 10枚로 된것이며, 製本이 안된 낱張인채 封套에 넣어 두고 있는 版本이다. 版權紙에는 京城에 있는 大聖文學院書籍出版部에서 昭和12(1937)年에 刊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 第1圖를 보면 紙面의 폭(가로)이 31*cm* 길이(세로)가 91 5*cm*이며, 印刷한 版面은 四周双邊으로 內邊間의 폭이22 6*cm*의 세로로 긴 型의 印刷物이다. 第1圖의 體裁는 上段이 圖 下段이 說이며, (第35圖參照) 書名은 圖의 上部 右側에 있다. 第1圖 뿐만 아니라 다른 9圖도 모두 上段 위에 圖名이 있는 대신에 書名은 없다. 이 石印本 ≪聖學十圖≫의 차례를 보면 <第一太極圖·第二西銘圖·第三小學圖·第四大學圖·第五白鹿洞規圖·第六心統性情圖·第七仁說圖·第八心學圖·第九敬齋箴圖·第十夙興夜寐箴圖>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 차례로 보아 退溪 新圖의 차례를 따른 것 같다. 이 책을 刊行한 大聖文學院에 대하여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

231) 종로도서관, 장서목록·고서해제편, 1970 (서울 同館, 1971). 請求記號 151 53.
232) 註172 同書
233) 종로도서관, 前揭書, p.
234) 請求記號 古朝 17—16

(29) 1964年 后山書堂刊 鉛印本

이 책은 정확한 書名이 ≪聖學十圖附錄≫이다. 모두 2卷1册으로 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세로 29.6*cm* 가로 19 4*cm* 이다. 卷首에는 <聖學十圖附錄序>라는 이 책의 撰者인 許愈의 自序가 있으니, 여기에서 許愈는

> 師吾退陶李先生 平生用功之實 備載於聖學十圖 ··今年冬 病臥后山之室 與一二學者 依心經附註例 附錄若干條 於圖說之後 名之曰聖學十圖附錄 非敢求多於圖說之外也 光武癸卯冬十一月日金海許愈序

라고, 光武7年(1903) 겨울에 后山書堂에서 여러 學者와 함께 ≪心經附註≫의 例에 따라 <附錄>을 덧붙여서 撰述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 序文은 1張으로 이루어져 있다.

序文이 끝난데 이어 退溪의<進聖學十圖箚> 3張이 있고 그 다음에 本文이 시작된다. 本文은 모두 2卷으로 되어 있으며 첫卷인 <聖學十圖卷之一>은 모두 59張이다. 第1張의 版式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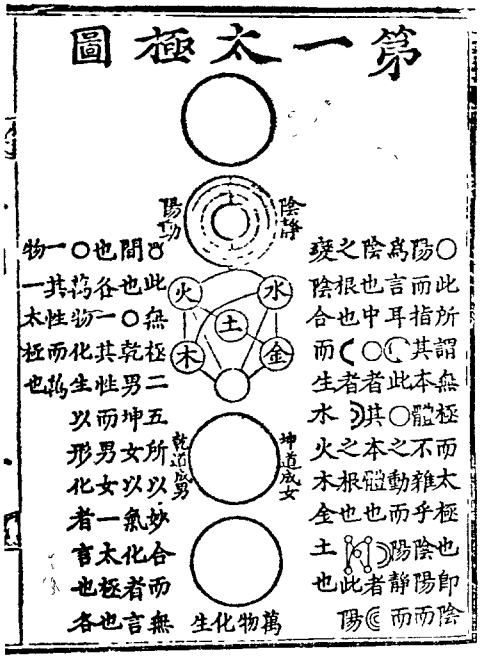
> 四周双邊 半匡： 21 2×14 15*cm* 版心： 上白口 上黑魚尾(單線, 單絲)「聖學十圖附錄卷之一」双線, 張次「一」

과 같다. (第36圖參照)卷之一에는 <第一太極圖·第二西銘圖·第三小學圖·第四大學圖>의 四圖分이 收錄되어 있으며, 每圖 머리에는 石版으로 二重 印刷한 圖가 있고 다음面부터 說이 있다 이 圖와 說은 退溪의 ≪聖學十圖≫를 그대로 引用하여 轉載한 것이다. 이러한 退溪의 圖와 說에 이어 許愈가 모은 中國 및 우리나라 여러 學者들의 說을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說들의 版式은 위와 같으나 界線이 있으며, 12行 28字라는 點만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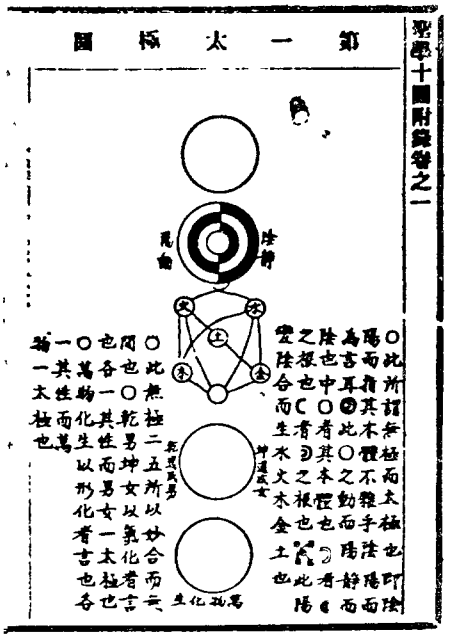
卷之一이 끝나자 새로운 張次로 시작하는 <聖學十圖附錄卷之二> 모두 46張이 있다 卷之二는 <第五白鹿洞規圖·第六心統性情圖·第七仁說圖·第八心學圖·第九敬齋箴圖·第十夙興夜寐箴圖>등 六圖分이 收錄되어있으며 그 圖說·附錄의 體裁는 卷之一과 같다 이 卷之二의 차례중에서 第七·八圖의 차례를보면, 許愈는 退溪新圖의 어느 版本을 台本으로 삼아 이 ≪聖學十圖附錄≫을 撰述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卷之二의 46張이 끝나면 <聖學十圖附錄總論>이 넉張 있다. 이 <總論>은 許愈가 쓴 것이며. 그 張次는 卷之二의 第47~50張으로 繼續되어 있다. <總論> 다음에는 <謹書聖學十圖附錄後>가 있다. 이 역시 文脈으로 보아 許愈의 글로 보이며, 그 張次 역시 連이어져 第51~52張으로 表示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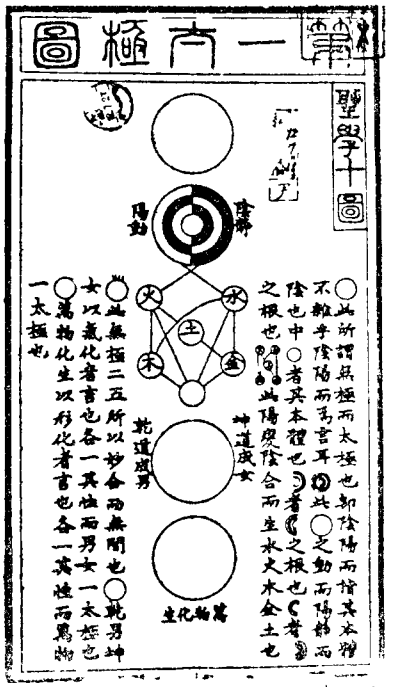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聖學十圖附錄後識>가 2首 있다. 첫 識文은 金槐이 쓴 것으로 그 要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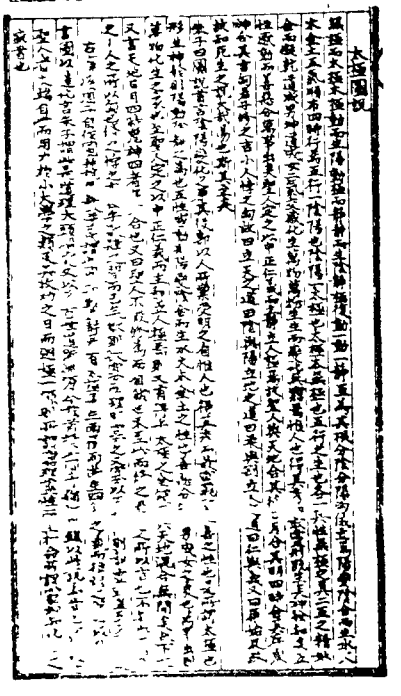


第34圖 嶺營刊本. 第一太極圖



第36圖 附錄本. 第一大極圖





第35圖. 石印本. 第一太極圖 .上段 및 下段

를 보면

·后山先生許公愈 裒粹諸儒說論 附錄各圖之下 是錄也 在公歿之前一年 鈔輯纔具 而未及整理成書疾病 以書屬大溪李公承熙 李公則旻 ·死未果施手旣而許公之子珪氏 又以謀諸公同志及及門數公 而亦無任者 原本之遂藏巾衍 且三十年 往歲 公胤孫銓謂棿 曾從事是圖之學 責以爲役棿 ·就隱括 間有刪補 以盡其類例 積以旬月 頭面稍完 合部繕寫 可得二册· 歲在乙酉夏六月下浣 後學聞韶金棿謹識

라고 되어 있다. 이 識文이 끝난데 이어 한 字씩 나려서 金鍾浩의 識文이 한首 더 있는데 거기에는

右聖學十圖附錄一部 后山許先生之所編輯者也 先生奄棄後學 草本仍藏在巾衍 先生胤孫銓氏 曾以就屬乎 吾師晦室 刪補勘整繕寫成卷 而亦未及入梓 以行于世 今年春 自先生本堂 有歲行舍菜之會 先生族孫宗·叔·洞諸君 收議士林 始出藏本 付之活印 先生去世週甲 甲辰流火節 後生末學 聞韶金鍾浩謹識

라고 있어, 이 ≪聖學十圖附錄≫이 撰述·編纂·刊行하게된 來歷을 밝히고 있고, 또 이 册의 刊行이 許愈 別世後 60年만에야 刊行하기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다.

이 册은 版權紙에 따르면 晋州에 있는 日新印刷所에서 印刷 하였으며 發行所는 陜川郡佳會面德川里에 있는 后山書堂으로 되어 있고, 發行日字는 甲辰 즉 1964年의 7月 20日로 되어있다.

이 ≪聖學十圖附錄≫은 韓日合邦以前의 著作으로서는 唯一한 ≪聖學十圖≫의 註釋書乃至는 集說書로 볼 수 있으며, ≪聖學十圖≫의 根本理念을 그대로 살리면서 後學의 說을 더 追加한 點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만큼, 退溪의 ≪聖學十圖≫를 硏究하는데 뿐만 아니라 退溪思想에 대한 後學들의 생각을 綜合하였다는데서 退溪思想硏究에도 꼭 必讀의 책으로 생각된다.

己 結 言

以上과 같은 ≪聖學十圖≫의 版本을 總括하여 보면

첫째. (27)과(29)의 鉛印本 그리고 (28)의 石印本을 除外하고는, 그 刊本이 알려진 것은 대체로 木板本이라는 點이다. 이는 ≪聖學十圖≫의 열가지 그림으로 因하여 그 刊行이 木板本으로만 可能하였던 것을 짐작 할 수가 있고,

둘째 刊本에 대해서 알려진 것 중에서 (1)과 (4)를 除外하고는 대체로 小樣圖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셋째 우리나라 板本인(1)(4)와 (6) 그리고 日本刊本인 (16)과 (17)의 다섯가지 以外의 現存 刊本들은 대체로 新圖의 차례 즉 <第七仁說圖>·<第八心學圖>의 順으로

圖說을 배인한 것을 안 수 있다.

넷째. 모두 29種의 版本中 그 刊行年度가 分明한 책으로는 宣祖 在位時에 刊行된 책이 8種으로서 다른 어느 임금의 在位時보다 가장 많이 刊行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다섯째. 같은 著者의 ≪戊辰封事≫와 함께 刊行한 것이 3種, ≪聖賢道學淵源≫과 함께 刊行한 것이 1種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섯째. ≪退溪先生文集≫과 ≪三先生遺書≫ 속의 一部로서 刊行된 일이 있음을 알 수있다.

일곱째. 刊行된 場所는 校書館 뿐만 아니라 八道에 걸쳐서 刊行되었으며, 外國에서는 日本에서 2種, 中國에서 2種이 刊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聖學十圖≫의 版本은 위에 든 以外에도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앞으로 ≪聖學十圖≫에 대한 版本學的인 研究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問題가 남아 있다고 보겠다

첫째. 아직 發表되지 아니한 壬辰戰前 刊行物 뿐만 아니라 壬辰戰 以後의 刊本을 더 發掘하여 研究하는 일. 이에 곁드릴 作業으로는 특히 日本에 所藏하고 있는 藏本을 調査 할 일.

둘째. 여러가지 ≪攷事撮要≫에 記錄된 校書館의 印本을 發掘하여 究明하는 일.

셋째. 形態的인 面 뿐만 아니라 內容 本文에 대한 徹底한 對校 (한 例로 啓明大本과 英祖20年(1744) 內賜本 등에서 第六圖의 圖上에 나타나는 差異 등)를 行할 일 등이다.

(1976年 11月 16日稿) 以下 續稿함